

석사학위논문

교회 내 예배무용 사역을 위한 사례 연구

-명성교회 『현대무용 선교단』을 중심으로-

2024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이 주 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교회 내 예배무용 사역을 위한 사례 연구

-명성교회 『현대무용 선교단』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for Worship Dance Ministry
within the Church

-Focused mainly with Myeong-Seong Church
『Contemporary Dance Mission Team』-

2023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이 주 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교회 내 예배무용 사역을 위한 사례 연구

-명성교회 『현대무용 선교단』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for Worship Dance Ministry
within the Church

-Focused mainly with Myeong-Seong Church
『Contemporary Dance Mission Team』-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이 주 희

이주희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 남 용 (인)

심사위원 안 신 희 (인)

심사위원 박 영 애 (인)

국 문 초 록

교회 내 예배무용 사역을 위한 사례 연구

-명성교회 『현대무용 선교단』을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이 주 희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무용을 예배의 한 요소로 인정하며 사용할 정도로 무용을 도입, 장려하며 무용을 통해 예배를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 예배무용 사역에 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교회 안에서 예배무용의 역할과 기능을 살피고 이들의 사역은 어떠한 체계 및 지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본 연구는 교회 내 예배무용 사역을 위한 사례 연구로 명성교회 『현대무용 선교단』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명성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문화예술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초기부터 다양한 문화예술의 도입과 장려로 인해 현재 교회 예배에서는 말씀과 함께 특별순서로 찬양, 기악, 무용 등의 공연이 매 예배마다 이뤄지고 있다. 또한 4000명 이상 대규모의 성가대를 갖춘 특징적인 교회로 예배무용 사역도 다양한 후원과 지원 체계를 통해

장려되고 있다. 예배무용에 관하여 인터뷰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조사하였으며, 명성교회 예배무용 사역의 사례를 통해 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명성교회 예배무용 사역의 운영은 체계적으로 조직화 된 구조를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단장과 부단장으로 구성된 제도 안에서, 이들은 무용단을 위해 물질 및 재정적 후원 외에도 기도로 예배무용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둘째, 명성교회의 예배무용 사역은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으로 무용단의 전용 연습실뿐만 아니라 음악 시스템을 다양하게 지원받고 있으며, 교회 내 조명, 무대 장치 등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다.

셋째, 명성교회 예배무용 사역은 교회 내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팀들과 전문성 및 예술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대학부 소속 『댄스선교부』와 협업을 하며,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교회 내 오케스트라와의 협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명성교회 『현대무용 선교단』의 경우 예배무용 사역을 위해서 무용수들의 신체 훈련과 영성 훈련의 조화로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용단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도비, 의상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명성교회의 예배무용 사역은 체계적인 운영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예배무용 사역의 완성도와 전문성 및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후원을 하면서 예배를 위한 무용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주요어】 예배무용, 예배무용 사역, 기독교 문화예술, 명성교회, 현대무용 선교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4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5
제 2 장 국내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	6
제 1 절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의 개념	6
제 2 절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의 유형	8
1) 찬양	8
2) 무용	10
3) 오케스트라	15
4) 뮤지컬	17
5) 스킷 드라마	19
제 3 장 명성교회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	21
제 1 절 주요 활동	21
제 2 절 팀의 구성	24
제 3 절 사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29
제 4 장 명성교회 예배무용 사역	36

제 1 절 『현대무용 선교단』	36
제 2 절 『아름다운 무용선교단』	39
제 3 절 『댄스선교부』	42
제 4 절 앤프랜즈 예배	43
 제 5 장 『현대무용 선교단』의 예배무용 사역	48
제 1 절 『현대무용 선교단』의 사역	48
1) 『현대무용 선교단』의 구성 및 운영	48
2) 『현대무용 선교단』의 창작 작업	53
제 2 절 『현대무용 선교단』의 예배무용 사례	56
1) 예배무용 사역	56
2) 예배무용 사례	59
 제 6 장 결론 및 제언	69
 참고문헌	72
 ABSTRACT	77

표 목 차

[표 2-1] 기독교 무용의 유형	11
[표 3-1] 음영위원회의 주요 활동	23
[표 3-2] 문화선교학교의 교육과정 및 목적	30
[표 3-3] 무용학교 운영	34
[표 4-1] 앤프랜즈 찬양예배 순서	44
[표 5-1] 직책 및 역할	50
[표 5-2] 『현대무용 선교단』의 예배무용 사역	56
[표 5-3] 추수감사절 찬양예배 순서	60
[표 5-4] “태초의 움직임 그리고 감사”의 내용	64
[표 5-5] 제 1 장 구성	66
[표 5-6] 제 2 장 구성	67
[표 5-7] 제 3 장 구성	68

그림 목 차

[그림 3-1] 찬양대 및 중창단의 구성	26
[그림 3-2] 관현악단 구성	27
[그림 3-3] 악기선교팀 구성	28
[그림 3-4] 예배무용팀 구성	29
[그림 3-5] 문화선교학교 조직도 및 프로그램	30
[그림 5-1] 『현대무용 선교단』의 조직도 및 구성	50
[그림 5-2]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율 변화	51
[그림 5-3] 일반 예배와 절기 및 행사예배 시 안무 창작 과정의 차이점	54
[그림 5-4] 예배무용 진행 과정	65

사 진 목 차

[사진 3-1]	무용학교 ‘발레 공연’	34
[사진 3-2]	무용학교 ‘워십댄스 공연’	34
[사진 3-3]	무용학교 ‘난타 연합공연’	35
[사진 3-4]	무용학교 ‘성탄 발표회’	35
[사진 4-1]	『현대무용 선교단』의 작품 “ You were there ”	37
[사진 4-2]	『현대무용 선교단』의 작품 “ 주기도문 ”	38
[사진 4-3]	『현대무용 선교단』의 작품 “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	38
[사진 4-4]	『현대무용 선교단』의 작품 “ 오래전 ”	39
[사진 4-5]	『아름다운 무용선교단』의 작품 “ 사명 ”	41
[사진 4-6]	『아름다운 무용선교단』의 작품 “ 주께서 왕이시라 ”	41
[사진 4-7]	청년대학부 예배 중 『댄스선교부』의 활동 모습	43
[사진 4-8]	타 무용단과의 협업 무대	43
[사진 4-9]	애프랜즈 ‘프로듀스N’ 뮤직비디오 창작 1	47
[사진 4-10]	애프랜즈 ‘프로듀스N’ 뮤직비디오 창작 2	47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국의 무용이론가 존 마틴(John Martin)은 “무용예술이란 어떤 사람이 이성 혹은 지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상 및 감정을 신체 움직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¹⁾라고 하였다. 이처럼 무용을 표현하는 이의 감정과 사상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원동력이며, 무용 움직임은 내면의 깊은 영혼의 표현과 더불어 종교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구약과 신약시대의 무용은 귀족 및 서민들의 각 절기 행사 및 축제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초기 예배무용은 종교의식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였으며 매우 신성하게 여겨졌다.²⁾

제임스 화이트는 예배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분의 임재에 대한 인식으로 이끈다 하였다. 그는 예배 예술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사용된다면, 예배 안에서 종교적인 힘이 엄청날 것이라 말하며, 교회 안에서 예배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³⁾ 이처럼 무용 움직임을 통해 예배의 의미와 메시지를 시각적, 상징적으로 전달하기에 예배무용은 교회 예배 안에서 특별한 절기를 기념하고, 예배의 내용과 그 의미를 더욱 깊게 부연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⁴⁾ 또한 무용은 보는 이에게 전해주는 정서적, 심리적 전이 에너지가 있어 어떠한 예술보다도 상대방에게 전이되는 힘이 강하다.⁵⁾

1) 송종건.(1998). 『무용학 원론』. 서울: 도서 출판 금광, p.28.

2) 박미정.(2020). “한국교회 예배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p.66.

3) 이 완.(2018). “절기 예배무용 창작을 위한 접근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p.2. 재인용.

4) 신수연.(2009). “기독교무용의 교회 내 활용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p.15.

5) 안신희.(2021), 절기무용 수업 강의노트.

폐기 하퍼는 “춤은 단순한 신체적 운동이 아니라 자유 형성과정이며 해방의 행위로서 예배에 적합한 것이며 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고 응답하는 행위이다.”⁶⁾라고 하였고, 박미정은 예배무용이 성령의 임재를 이끌어주며 예배를 방해하는 다른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닌 무기와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⁷⁾ 이는 춤과 예배무용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예배를 더욱 의미 있게 도와주며, 예배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순수하고 진정한 예배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시149:3),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시150:6)고 하였다. 이는 단순한 움직임만이 아닌 소고와 수금과 춤으로 여호와를 있는 힘껏 찬양하라 하면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 즉, 생명이 있는 자에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에는 무용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무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사용되며, 예배를 위한 무용을 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⁸⁾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무용을 예배의 한 요소로 인정하며 사용할 정도로 무용을 도입, 장려하며 무용을 통해 예배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도 연구를 한 박미정(2006)은 “기독교에서 찬양과 설교의 한 부분으로 무용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질문에 신학생들의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이 77.6%로 비교적 높다고 말하였으며,⁹⁾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6년 최수진의 연구에서도 목회자의 교회 무용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수진(2016)의 연구에서 눈여겨볼 제안은 기독교 무용이 예배 안에서 찬양의 역할을 더욱

6) 이신영.(2001). “한국 선교무용의 실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39.

7) 박미정.(2020). “한국교회 예배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pp.1-2.

8) 이정인.(2010). “기독교 무용의 인식 변화 분석.”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p.2.

9) 박미정.(2006). “신학생들의 기독교 무용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p.43.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 안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목회자와 교회의 적극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즉, 기독교 무용이 교회 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의 총체적인 것으로 공간과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¹⁰⁾ 이러한 시점에서 예배무용 사역 운영에 대한 연구, 효율적인 팀 사역 체계에 관한 연구 등이 이슈가 되어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중에는 김남희(2017)의 「교회무용 팀 사역을 위한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교회 예배무용팀의 운영과 관련된 요소를 확인하여 그 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로, 무용팀들의 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는 아직도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여 각 팀 리더의 섬김에 의지하는 현실 속에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팀 사역은 교회라는 큰 공동체와 연합하는 작은 교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¹¹⁾ 이처럼 예배무용 사역이 교회 안에서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예배무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장려가 중요하며, 교회의 후원과 지원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더불어 교회 안에서 많은 후원과 관심 속에 적극적으로 무용 사역을 하고 있는 예배무용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현재 국내 교회들 가운데 예배무용 사역이 교회의 후원과 관심 속에서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진 교회 중 하나가 명성교회이다. 명성교회는 담임목회자가 교회 개척 초기부터 문화예술에 대하여 열린 마음이었기에 찬양, 기악 그리고 무용 등의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회에서의 후원 체계가 잘 되어 있다.¹²⁾

명성교회는 『현대무용 선교단』, 『아름다운 무용선교단』, 『댄스선교부』 등 여러 무용단이 있는데, 그 중 『현대무용 선교단』이 가장 활발한 예배무용 사역을 하고 있으며, 예술성과 전문성을 갖춘 무용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10) 최수진.(2016). “현대 교회 내 기독교 무용의 인식 분석에 의한 개선 방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pp.105-106.

11) 김남희.(2017). “교회무용 팀 사역을 위한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pp.70-71.

12) 김영미.(2019). “한국 교회 예배무용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p.46.

한 전 이화여대 무용과 교수인 육완순이 이끌었던 예배무용단으로, 그녀의 작품 세계는 늘 새로운 것을 펼쳐나가려는 불굴의 의지와 개척정신으로¹³⁾, 다양한 작품과 레파토리를 선보이며, 예배 안에서 무용을 통해 교인들에게 예배의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4000천여 명의 대규모 성가대를 보유하고 있는 특징적인 교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받으며 예배무용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명성교회를 대상으로 예배무용 사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현대무용 선교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더 나아가 여러 예배무용 사역 중 『현대무용 선교단』의 최근 올려진 추수감사절 예배무용 사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예배무용 사역에 관한 연구로 인터뷰 및 인터넷 자료 조사를 중심으로 한 질적연구이다. 예배무용팀 중 『현대무용 선교단』과 『아름다운 무용선교단』은 인터뷰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외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과 예배무용에 관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개념을 정리하고 그 유형을 찬양, 무용, 오케스트라, 뮤지컬, 스킷 드라마로 분류하여 문헌 및 인터넷 기사 등을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명성교회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에 대하여 교회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주요 활동, 팀의 구성, 사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알아보았다.

셋째, 명성교회 예배무용 사역에 관하여 교회 홈페이지 및 인터뷰를 통

13) 이은주.(2017). “구술채록문 분석을 통한 초기 한국현대무용사 연구: 미국현대무용 도입 시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p.83.

해 조사하였다.

넷째, 무용단 중 『현대무용 선교단』은 지도교수 이정현, 『아름다운 무용선교단』은 단장 김선우와 인터뷰를 통해 무용단에 관련된 자료수집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배무용 사역의 사례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시기가 2022년 추수감사절이었기에 당시 『현대무용 선교단』이 올려드린 추수감사절 예배무용 “태초의 움직임 그리고 감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사역에 관해 지도교수 이정현과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이 연구에서는 예배무용 사역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명성교회 『현대무용 선교단』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최근에 올려진 『현대무용 선교단』의 추수감사절 예배무용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명성교회 기독교 문화예술의 사역과 일부 예배무용팀에 관하여서는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중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한계로는 『현대무용 선교단』의 사역에 관한 문헌자료가 없기에 인터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창단자인 육완순이 타계하였으므로 그녀가 지도하던 시기의 사역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제 2 장 국내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

제 1 절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의 개념

문화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궁극적인 신념들과 가치들의 공연(Performance)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자체가 문화라면, 문화는 그 무대를 지탱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문화’라는 단어는 라틴어인 ‘Colere’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뜻은 “땅을 갈거나 경작하다”라는 뜻으로 문화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아래 있는 인간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¹⁴⁾ 이처럼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에 근원을 두고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인간의 모든 활동이라 볼 수 있으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화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 곧 그의 종교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본질이라 해석될 수도 있다.¹⁵⁾ 문화는 지식, 예술, 신념, 관습, 행동양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를 갖지만, 예술은 전반적으로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뮤지컬, 무용과 같은 공연 활동을 포함하는 예술적 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예술에 대한 정의 또한 개혁주의적¹⁶⁾ 관점에서 보면 ‘예술의 근원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이 예술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에 카이퍼는 예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예술이란 예술가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미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물의 창조주이시다. 새로운 것을 낳는 힘은 하나님이시다.”¹⁷⁾라고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창조해 내시는 예술가라 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문화와 예술은 모두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공

14) 이지영.(2019).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문화예술의 방향과 전략.”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p.7. 재인용.

15) 이지영, 상계논문, p.8. 재인용.

16) 개혁주의. <<https://naver.me/5CpdmR2y>>.

17) 이복수.(2012). “기독교 선교 영역으로서의 문화 사역.” 『복음과 선교』, 제17집:170.

통점을 가진다.

문화선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문화를 통한 선교라는 뜻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전도 방법을 벗어나 새로운 전도 방법인 연극, 무용, 음악, 방송,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분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문화선교 또는 문화사역이라는 용어로 이해하였다. 둘째는 문화선교라는 용어는 이전의 문서선교라는 용어의 확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선교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전에는 전통적인 복음전파를 보완하고 새로운 선교사역의 확대를 의미했던 말이 문서선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화라는 광범위한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문서선교를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 장르를 통한 선교를 문화선교라 부르게 되었다.¹⁸⁾

박양식은 문화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기존의 문화선교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문화를 통한 선교가 아닌 문화를 향한 선교로 그 중심 전략이 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⁹⁾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선교의 정의를 다시 정립하자면 “문화선교란 문화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제반 활동을 가리킨다.”²⁰⁾ 이는 문화를 단순히 선교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더욱 심화된 선교사역으로 문화선교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선교란 문화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²¹⁾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문화를 향한 선교의 적극적인 방법과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자들이 가진 특별한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다.

18) 홍성준.(2009). “기업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교회 문화사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p.29.

19) 박양식.(2004). 『문화를 알면 사역이 보인다』. 서울: 기독교 연합신문사, p.13.

20) 박양식.(2002). 『성경에서 찾은 문화선교 전략』.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p.14.

21) 홍성준, 상계논문, p.31.

제 2 절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의 유형

1) 찬양

기독교를 ‘찬양의 종교’라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가장 기뻐하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를 통해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사43:21)²²⁾ 그렇다면 찬양이란 무엇인지, 찬양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찬송의 본질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데 있다.(엡 1:4 ; 시150:6 ; 사43:21 ; 계 19:5) 그러므로 찬송은 인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 뜻은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본질적인 최상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며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즉 찬송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찬양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인생들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명령한다.²³⁾

주후 3세기경 초대교회의 예배는 예배의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었고 이때 예배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설교, 성만찬, 찬송이었다.²⁴⁾ 설교와 성만찬이 예배라는 수레의 두 바퀴였다면 이 정지 된 두 수레 바퀴를 움직이고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 찬송이며 그만큼 찬송은 예배와 축제에 있어 활력적인 요소이며 생명력이었다.²⁵⁾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지만 거기에 찬양이 함께 하면 더 큰 활력과 생기를 얻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앞서 말한 견해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22)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3) 이국병.(2015). “한국교회 찬송가의 역사에 관한 고찰.”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피어션 신학 전문대학원, pp.24-25.

24) 이국병, 상계논문, p.35.

25) 문성모.(1997). 『민족 음악과 예배』. 서울: 한들 출판사, p.292.

종교개혁자 루터 또한 찬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며 그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찬송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며 나로 하여금 설교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였고 더 잘하게 깨우쳐 주었다. 찬송은 마귀를 물리치고 사람을 즐겁게 만들며 분노와 교만과 탐욕 등 모든 것을 물리친다. 나는 신학 다음으로 음악을 꿈으며 최고의 존경을 드린다. 비록 내가 가진 찬송의 상식이 보잘 것 없이 적은 것이기는 하나 나는 세상의 무엇하고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²⁶⁾

이렇듯 찬송은 현대의 예배에 있어 생동감과 활력을 더하고 교인들은 찬송을 통해 거룩하여지며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양음악의 전파는 1885년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와 아펜젤러(Appenzeller)에 의해 시작되었다. 초기의 선교사들은 선교와 더불어 찬송가를 정리하여 내놓았고, 이로써 우리나라 교회음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한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찬양대가 조직되기는 1910년경 길선주(吉善宙:1869-1935)목사가 시무하던 평양의 ‘장대현교회’의 성가대다. 1900년대 초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대부흥 운동은 찬송의 열의를 더욱 증가시켜 예배 시 찬양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본격적인 교회 합창 운동은 1913~1914년경 미국인 선교사인 엘리모 모우리(EliMo Mowry)에 의해 시작되었고, 당시 모우리는 성가 대원들에게 정식 4부 합창 훈련을 시켰다.²⁷⁾

인원은 15~16명 정도로 남성 대원으로만 구성되었는데, 이는 사회 관습상 남녀 혼성으로 조직하는 것을 불허하는 정서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의 교회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준 ‘필그림 합창단’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8군 군인교회 성가대로 발족되었고, 이동훈의 지휘 아래 꾸준히 활약하고 있었으며 황임훈 지휘의 ‘아넬 성가단’, 김두환 지휘의 ‘아가페 성가단’, 박재훈 지휘의 ‘서울코랄’ 등이 교회의 성가대 발전을 위해 큰일

26) 김영식.(1994). 『한구석 밝히기』. 서울: 도서출판 뿌리, p.20.

27) 한국 성가대의 역사. <<https://naver.me/FjjDeJVx>>.

들을 담당했다.²⁸⁾

현재 국내 대부분의 교회는 성가대원과 지휘자를 두고 있으며 찬양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예배에 기본이 되는 요소가 되었다. 성가대는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격인 역할을 통해 음악의 선율에 실려진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역할과, 기독교 음악 및 문화를 회중에게 전달하고 회중들의 예배 자세와 찬양의 습관을 기르는 등의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⁹⁾

2) 무용

기독교 안에서의 무용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개체로 사용되는 모든 무용을 의미한다. 기독교 무용이 일반 무용과 다른 것이 있는데, 무용수나 안무자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움직임에 담아 표현하는 하나의 예배이므로, 일반 무용과는 그 목적이 다르다.³⁰⁾ 이는 기독교 무용은 다른 일반적인 무용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그 기준은 바로 성서로 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교리와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서로 기준 삼고 있는데, 이는 성서가 최고의 규범이며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무용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과 종교적인 체험 그리고 가치 판단은 반드시 성서에 근거해야만 한다.³¹⁾

기독교 무용에 대해 최신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감격을 담아 드리는 영혼의 찬양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보혈의 사랑을 온몸에 담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몸의 찬양이라 하였다.³²⁾ 또한 정

28) 김주한.(2009). “성가대의 효과적인 기초훈련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 신학대학원 대학교, p.8.

29) 김주한, 상개논문, p.10.

30) 임혜영.(2006). “기독교무용 작품 「70년, 희년의 춤」을 통한 대중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9.

31) 임정희.(2008). “기독교무용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 개발.” 석사학위논문. 충남 대학교 대학원, p.30.

32) 최신정.(2006). 『하나님을 향해 춤을』. 서울: 요나단 출판사, pp.35-36.

일환은 기독교 무용이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몸 전부를 통해 경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의 표출이라 하였다.³³⁾ 박순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가운데 몸짓, 율동 등, 무용적인 요소를 포함한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추는 일체의 것이라 하였다.³⁴⁾ 이처럼 기독교 무용이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구원받은 자가 출 수 있는 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기독교 무용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고, 용어에 대한 정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기독교 무용 용어는 대체적으로 사용 되어지는 목적에 의해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 무용은 목적에 따라 현재 예배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무용을 예배 무용으로, 선교지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 무용 그리고 공연의 목적을 지닌 기독교 예술무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회 안과 밖에서 기독교적 마인드로 행해지는 모든 무용을 보편적으로 기독교 무용이라 인식하고 있다.

기독교 안에서의 무용은 찬무, 몸 찬양, 예배 무용, 경배 무용, 워십댄스, 선교 무용, CCD(Contemporary Christian Dance), 바디워십이라는 용어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춤’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³⁵⁾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독교 무용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시로 2012년 최지연의 연구에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지연은 기독교 무용의 유형을 몸찬양(율동), 수화찬양, 워십댄스, CCD, 뮤지컬 댄스, 예술무용으로서의 기독교 무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2-1] 기독교 무용의 유형³⁶⁾

33) 손수경.(2008). “기독교 방송매체를 통한 기독교무용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p.6. 재인용.

34) 박순자.(2004). 『21세기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 서울: 도서출판 금광, p.84.

35) 김은정.(2005). “기독교 관점에서 무용치료의 전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24.

36) 최지연.(2012). “기독교무용의 가치인식 변화에 따른 공연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pp.16-17.

유 형	내 용
몸 찬양(율동)	한국교회가 1992년 찬양 율동을 성서적 용어로 정리한 단어로(박연훈, 2002), 찬양 율동은 교회학교에서 흥미를 증진시키며, 분위기를 띄우면서 어린이들을 예배에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찬양을 위한 율동으로 새롭게 정립하면서 몸 찬양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되었다.
수화찬양	수화(Sign Language)란 농인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 양식으로 채택된 기호의 체계로 이루어진 일종의 비음성언어으로써 사용되며(김승국, 1994), 이러한 수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화 찬양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든 찬양을 수화로 표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십댄스	위십(worship)은 ‘가치 있다(worth)’와 ‘신분(ship)’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움직여 그분께 존귀와 경의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경배이고 그분이 행하신 선한 일들에 대하여 춤으로 영광 돌려 찬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CCD (Contemporary Christian Dance)	Contemporary Christian Dance의 약자로 위십댄스에 비해 세련되고 현대적인 빠른 비트의 CCM과 힙합, 재즈 등과 같은 최신의 음악 장르에 맞춰 춤을 추는 것으로, CCD는 최근 기독교 청소년들 사이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다. 어깨춤부터 고도의 테크닉을 필요로 하며 스트릿 댄스, 힙합, 펑키, 랩, 팝핀, 재즈 등을 모두 CCD의 범주로 볼 수 있다.
뮤지컬 댄스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 뮤지컬의 오락적인 요소와 자유로움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접촉점이 되어 주는 것으로 음악은 가사가 있는 곡 또는 연주만으로 이뤄진 곡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복음을 내포하여 표현하거나, 교육적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주연, 2004)
예술무용으로서의 기독교 무용	무용을 전공한 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예술무용으로 성경의 주제나 기독교 내용을 삶 속의 모든 소재를 이용하여, 편집된 찬양곡이나 여러 장르의 기독교적 음악으로 예술성 있게 표현한 무대 용 작품들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는 기독교 무용에 대하여 최경희, 박영애(2016)는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첫째는 종교적 의례 행위 및 특별한 절기를 기념하고 예배의 내용과 의미를 보완하는 무용을 예배무용이라 하였으며,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비교적 쉬운 움직임으로 구성된 무용을 경배무용, 셋째는 문화 양식인 춤을 활용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가 목적인 무용을 선교무용, 마지막으로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무용이나 음악 또는 무대장치를 이용한 형태인 CCD로 이는 보다 대중적인 성격을 지향하는 무용이라 하였다.³⁷⁾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를 1885년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 의료선교와 교육 선교, 그리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활동 등을 통하여 기독교의 유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한국사회는 샤머니즘, 불교, 유교 사상 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보수적인 사고와 윤리관으로 인해 무용을 예배에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손유희, 제츠처, 율동이 같이 수반되어 예배드려졌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주일학교의 예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이뤄진 1913년 한국 최초의 주일학교 집회인 덕수궁 집회와, 1922년 평북서천 미국 북 장로회 선교사인 제인 사무엘에 의해 시작된 오늘날의 여름성경학교라 할 수 있는 교회계절학교 집회로 확인된다.³⁸⁾ 이처럼 초기에는 무용 및 움직임이 어린이들의 예배 안에서 교육용으로 미비하게 사용되었으나 그것이 변화, 발전하게 되어 현재에 와서는 다양한 형태의 워십댄스 및 예술무용으로서의 기독교 무용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다.

예배 안에서의 무용은 1970년대에 이르러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착한 어린이 교육원의 나하나 전도사에 의해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율동이 창작되고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활성화를 이루기 시

37) 최경희·박영애.(2016). “기독교 무용 지도자 양성의 현황 및 개선 방향.” 『한국무용예술학회』, 61(4) : 75.

38) 이신영.(2001). “한국 선교 무용의 실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p. 53-54.

작하였다.³⁹⁾

1980년대에는 찬양집회가 활성화되고 당시의 율동은 나름의 ‘형식’과 ‘이론’을 갖추게 되었으며 ‘의미 있는 율동’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또한 무용을 전공한 무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면서 세속적으로 변질된 춤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고 이때부터 ‘선교무용’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⁴⁰⁾ 그리하여 선교무용 작품을 선보이는 단체들이 하나 둘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기독교 무용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이해라에 의해 “국제찬양 율동 신학원”이 창단되어 일반인들을 위한 찬양 율동 지도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 산하기관의 “영산 순복음 율동대학”, 박연훈의 “프레이즈 예술신학원” 등 무용예술 신학원의 설립이 점차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박순자에 의한 ‘숙명여대 평생교육원 선교무용과정’을 시작으로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기독교 무용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기 시작하여 점차 확장되어가면서 마침내 대학교 정규과정으로 기독교무용 전공이 서울 기독교대에 신설되기도 하였다.⁴¹⁾ 2015년에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안에 기독교 무용 전공 과정이 개설되었는데, 이는 박영애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기독교 무용 전공생만을 위한 유일한 석사과정으로 우리나라 최초이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과정이다.⁴²⁾ 이렇듯 국내 기독교 무용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기독교 무용 단체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 또한 추구하고 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 정착한 것은 약 1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예배에 본격적으로 무용을 사용하게 되고, 무용이 예배의 한 요소로 정착하기까지는 약 4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기독교 무용을 통

39) 이신영, 전계논문, p.59.

40) 박현주.(2004). “한국 기독교무용의 전망.”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p.30.

41) 한재선.(2008).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 무용의 유형과 현황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p.81.

42) 김현정.(2020). “기독교 무용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현황 연구.” 『기독교무용연구』, 3:15-17.

한 선교 단체들의 활동과 기독교 무용 교육을 위한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겠다.

3)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말은 원래 한 무리의 연주자, 악기 또는 객석 가운데 있는 한 무리의 자리를 동시에 일컫는 개념이다. 이것은 코러스단의 ‘무용과 기악연주자를 위한 장소’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있다. 즉, 오케스트라의 어의는 장소를 의미하는 ‘Orchestra’의 동사인 ‘춤추다(Orkeishai)’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대 그리스의 원형극장에서 무대와 관람석 사이에 마련된 넓은 장소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합창대가 원형 무대에서 디오니소스에게 바치는 재단을 설치해 놓고 둘레를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으며 무대와 관람석 사이의 장소에는 악기 연주자가 위치하였다.

오케스트라라는 용어의 의미는 시대별로 변하였다. 그리스 말기에는 무대를 의미하였고, 16세기에는 무용을, 18세기에는 극장에서 악기가 위치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발전해 온 오케스트라는 현대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구성된 합주의 한 형태를 이루는 단체를 지칭하는 말로 ‘관현악단’이라고 부른다.⁴³⁾ 즉, 현대 교회에서의 오케스트라를 관현악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서구 음악의 전파는 1900년대 초기를 기점으로 평양에서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당시 평양은 기독교 선교의 주요 거점이자 선교사들의 활동 무대였기에 교회, 즉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평양의 기독교 확산과 함께 기독교 미션 스쿨인 ‘숭실과 숭의’, ‘숭전’은 미북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으며, 다수의 초기 한국 음악가들을 배출해 낸 산실로 보고 있다. 1920-30년대에 이르면서 당시 가창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음악교육이 이뤄졌고, 음악 교재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전문

43) 이진희.(2016).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실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6.

음악선교사인 말스베리 부부(Malsbary), 러츠(Luts, D.N), 부츠(Boots,F.S), 솔토(Mrs. D.L. Soltau)등을 통해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국내 음악교육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⁴⁴⁾ 이때부터 밴드 및 오케스트라가 조직되어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었고 합창이 활성화되면서 성가대의 조직도 더욱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악보집이 출판되고 이전과는 다른 장르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선보이며, 교회와 학교에서는 음악적 필요를 채웠다. 이러한 음악교육이 더 확장되면서 각종 예배와 집회, 학교에서의 공연과 음악교육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⁴⁵⁾ 또한 1930년 평양장로회 신학교에서 ‘마펏 선교사’의 설교로 진행된 여성부흥회에서는 음악을 배경으로 다양한 찬양을 함께 불렀고 그것에 맞춰 기도회를 인도하였는데, 이러한 음악을 통한 부흥 집회는 당시 여성의 정체성을 다시 형성하고, 여성도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신여성으로서의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⁴⁶⁾

이처럼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근대 음악교육의 시작은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앞서 말한 견해로 비추어 보면 교회의 음악은 크게 성악과 기악으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기악은 다시 피아노, 오르간, 핸드벨 그리고 오케스트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한 두명의 기악 연주자에 의한 연주팀들은 어느 교회나 존재하고 있다. 비록 적은 수의 악기팀들도 음악적으로 조금 서툴더라도 교회의 찬양팀에서 악기 연주를 필요로 한다면 그들은 연주를 돕는 사역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요약하자면 오케스트라는 악기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으며 금관악기, 목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들이 모여 있어야 규모가 제법 갖추어졌다 볼 수 있다. 이렇듯 규모가 큰 경우를 오케스트라라 부르고, 규모가 작은 경우 실내악단이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⁴⁷⁾

44) 김사랑.(2016).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한국음악학학회』, 24(1):60.

45) 김사랑, 상계논문, pp.95-96.

46) 김사랑, 상계논문, p.93.

47) 김남수.(1996). “교회 오케스트라 운영.” 『복음과 실천』, 9(1):70-74.

현대 교회에서 악기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관현악단은 교회 내 찬양 반주 팀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역 내 음악을 통한 선교에 앞장서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관현악 사역 단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뮤지컬

뮤지컬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제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서양 연극의 기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오니소스 제전에 어떤 종류의 음악과 춤이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무대극에서 음악과 무용이 중요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뮤지컬은 ‘오페라 코미크(operacomique)’, ‘오페레타’등 19세기 대중적인 무대예술 장르들의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⁴⁸⁾

뮤지컬은 일반적으로 현대 미국에서 발달한 음악극의 한 형식으로 뮤지컬 코미디(MusicalComedy)나 뮤지컬 플레이(MusicalPlay)를 종합하고, 그 위에 레뷰(Revue), 쇼(Show), 스펙터클(Spectacle)등의 요소를 가미하여 큰 무대에서 상연하는 종합 무대예술⁴⁹⁾로 인식하고 있다.

뮤지컬을 활용한 문화예술 사역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첫째, 뮤지컬은 분명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연극처럼 대본이란 텍스트를 갖추고 있고, 대사과 노래와 춤의 형식을 통해 기독교적인 주제를 풀어내며 행동이나 움직임을 통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면 뮤지컬을 상영하는 사람들은 배우들의 연기에 몰입하며 극적인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분명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⁵⁰⁾ 이러한 점에서 뮤지컬은 기독교 문화 사역으로서 효과가 있으며 청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문자화된 복음이 재미없다고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청소

48) 앤드루 램.(2008). 『150년 뮤지컬의 역사』. 정영목 (역). 풀빛, p.9.

49) 뮤지컬의 정의. <<http://www.korean.go.kr/>>.

50) 김신자.(2020). “뮤지컬의 기독교 문화사역 활용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pp.50-51.

년들에게는 뮤지컬이라는 매체를 통해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복음의 전달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뮤지컬은 종합 무대예술로서 전인을 자극하기에 교육적 활용 가치가 있다.⁵¹⁾ 뮤지컬은 대본, 음악, 춤, 연기, 무대 장치, 영상, 의상, 조명, 음향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이루어내는 공연으로서 이러한 요소들은 배우의 말과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며 음악과 극은 새로운 형태로 변한다. 이때 관객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관객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의해 공연의 색깔과 방법은 달라진다. 이때 뮤지컬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교육 대상의 정서와 상황에 친밀해야 하며 아울러 내용 면에서도 분명한 교육적 메시지가 존재해야 하고 교육 대상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⁵²⁾ 전인적인 교육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뮤지컬은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공연 예술로서 기독교 문화의 형성과 전파를 위한 도구가 된다.⁵³⁾ 앞서 말한 것처럼 뮤지컬은 언어를 이미지로 바꾸고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하고 감성적인 매체 음악과 춤을 통해 전달받은 이야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한 최적의 도구라 볼 수 있다.

국내에서 기독교적인 주제로 연출된 대중성 있는 뮤지컬 작품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레딕스-십계”, “갯스펠”, “마리아 마리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뮤지컬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었다.⁵⁴⁾ 이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 관람할 수 있었던 공연으로 뮤지컬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하며, 복음 전달에 있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1986년 윤석전 목사가 개척, 시무하고 있는 연세중앙교회는 현재 뮤지컬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 중 하나이다.⁵⁵⁾ 2009년 3월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문화행사에서 뮤

51) 김신자, 전계논문, p.52.

52) 박해성.(2013). “창작 뮤지컬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고찰.” 『한국예술연구』. 제7호, 171.

53) 김신자, 상계논문, p.55.

54) 박인용.(2015). “기독교 스토리텔링을 소재로 한 국내 창작 뮤지컬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p.12.

55) 연세중앙교회.<<https://naver.me/x9QHKG8o>>.

지컬 “그날”을 처음 선보였고 그 후 이전의 뮤지컬을 성경적으로 수정, 보완해 다시 상영하기도 하였다. “그날”은 때가 임박한 그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24:13). 즉 마태복음 24장을 근거로 한 마지막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징조를 실감 나게 표현하였으며, 극본, 작사, 작곡, 연기, 안무, 소품 등 모두 연세중앙교회에서 창작한 작품이다.⁵⁶⁾ “그날”은 관객들에게 뮤지컬에 나오는 인물 중 “과연 나는 누구와 같은 모습일까?”를 생각하며 자신의 현 모습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⁵⁷⁾ 연세중앙교회는 “그날”이라는 뮤지컬뿐 아니라 “집으로 가는 길”, “멋진 하루”, “하나님의 사람 유관순” 등의 작품을 주기적으로 선보이고 있다.⁵⁸⁾

5) 스킷 드라마

스킷 드라마(Skit Drama)의 정의는 교회 혹은 단체의 집회 시간에 소수 인원의 배우들이 회중들에게 설교자의 설교를 전후해서, 혹은 중간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상연되는 극(劇)이다. 이것은 사이코드라마(Psychodrama)처럼 상황을 설정한 후 즉흥적으로 배역을 결정하는 역할극(Role Playing)과는 다르고 기승전결의 구조가 완전히 갖추어진 촌극과도 다르다. 스킷 드라마는 결론이 유보된 짧은 극으로 기승전결이라는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연극의 한 형태인 스킷 드라마의 목적은 설교 주제에 대한 동기 부여와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⁵⁹⁾ 앞서 말한 일반적인 정의 외에 스킷(Skit)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으로 ‘무엇을 모방하며 조롱하는’과 같은 곧 ‘풍자’라는 의미로 풍자적인 성격과 그 역할의 독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열린 예배’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열린 예배의 영향으로 예배에서의 감격과 감동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졌기에 목회자들은 신도들의 관심, 요구, 기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

56) 그날 https://www.yonsei.or.kr/mc/page/subp.html?cd=YNOTI&mo=_view&seq=55866.

57) 뮤지컬 그날. <blog.naver.com/yonsei_y001/10014144120>.

58) 연세중앙교회. <<https://naver.me/x9QHKG8o>>.

59) 조현식.(2000). 『스킷 드라마』. 예영 커뮤니케이션, p.11.

려고 노력하며, 신도들의 문화와 삶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스킷 드라마’는 열린 예배에서 설교 주제에 대한 동기 부여와 문제 제기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다. 주로 설교 전후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며, 예배 순서에 드라마를 포함하여 신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의 삶과 관련성을 갖추려는 역할을 했다. ‘스킷 드라마’는 지루하고 딱딱한 예배 형식과 논증적이며 설명적인 설교와의 괴리감을 좁혀 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⁶⁰⁾ 이러한 방식은 신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예배 경험을 보다 생동감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국내 청소년 사역에 열정이 있는 목회자 중 1999년 꿈이 있는 교회를 개척한 하정완 목사는 ‘스킷 드라마’를 통해 예배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대사와 상황들을 이용하여 총 1백 50여 편의 스킷 드라마 대본을 써서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그는 “한번 만든 것을 계속 사용하는 영화와는 달리 드라마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공동체의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탄력성 있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극, 드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도구가 바로 ‘스킷 드라마’라고 전했다.⁶¹⁾

60) 곽지혜.(2021). “연극치료 모델을 활용한 스킷 드라마 효과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p.11.

61) 하정완 목사의 스킷드라마 대본집.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179452>>.

제 3 장 명성교회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

본 장에서는 명성교회의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교회마다 문화예술 사역을 담당하는 부서는 주로 선교부, 문화부 또는 예배부라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부서 내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사역의 지침에 따라 문화예술을 통한 활동을 한다. 명성교회는 음영위원회⁶²⁾라는 부서에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팀들이 소속되어 있고 주로 본 예배를 예술로써 돕고 있으며 외부 선교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 부서가 행하는 주요 활동을 확인하였고, 음영위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팀들을 확인하면서, 교회 내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조사하였다.

제 1 절 주요 활동

명성교회 내의 여러 부서 중 음영위원회는 교회의 예배를 돕는 한 부서로, 주로 예배 음악과 찬양 및 예배무용에 관련된 사역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다. 이 위원회는 교회의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 된 시간을 갖도록 돕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

첫째, 찬양 선정 및 연주에 관한 모든 일을 총괄 담당한다. 이것은 매 예배를 위해 적절한 찬양을 선정하고, 악기 연주자와 찬양대 및 중창단 등과 협력하여 찬양을 준비하여 예배를 돕는다. 명성교회는 매 예배마다 정해진 특별 순서가 있어 기악 연주, 찬양, 무용 등이 늘 예배에서 공연되고 있다. 특별히 찬양대는 매 예배 시간(오전 총 5부예배) 마다 정해진 찬양대가 있다.

둘째,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음영위원회는 주일 예배 및 특별 행사 예배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사님과 충분한 협의

62) 명성교회 음영위원회. <<https://naver.me/GhNCprws>>.

후 찬양 시간의 순서와 진행 방식을 결정하면서, 성도들에게 경건한 예배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악기를 연주하며 지도한다. 명성교회는 악기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은 교회이다. 이러한 전문가들로 모여진 팀원들에게 악기 연주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주자들은 더욱더 전문적이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예배를 돕도록 협력한다.

넷째, 본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본부 또는 각 교구와 협력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것은 예배마다 찬양 연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순서 진행 시 각 교구의 성도들과 의논하여 찬양에 따른 연주를 돕기 때문에 원활한 사역의 진행을 위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임무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수시로 본부와의 회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명성교회는 2007년 5월 교회 인근에 《월드 글로리아센터》⁶³⁾등을 건립하여 선교와 공연을 위한 미래형 공연장을 마련했다. 센터는 총 9개의 공연장으로 이뤄졌으며 언더우드 홀 (2,3층), 주기철 홀 (5층), 한경직 홀(4층)이라는 성직자들의 이름으로 지었다. 그중 언더우드 홀은 1336석의 객석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종합 공연장으로 국내외 정상급 음악인과 무용인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게 하였고,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당시 그래미상에 빛나는 불가리아 여성합창단의 내한 공연을 유치하고, 개관기념으로 소프라노 김인혜 초청 콘서트를 가진 것을 비롯해 명성교회 『현대무용 선교단』 초기 리더인 육완순 교수가 총 지휘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무용극도 선보였다. 국내 정상급 여성 성악가 50여명이 출연한 프리마돈나 앙상블 공연 등을 비롯하여 화려한 공연물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러한 선교와 공연을 위한 대규모의 공연장은 무용 등 다양한 예술 공연 사역에 있어 폭넓게 사용될 수 있기에 본 교회의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팀들은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면서 공연의 준비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격이 높은 문화예술 공연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63) 월드 글로리아 센터. <<https://m.segye.com/view/20071003001491>>.

여섯째,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 “사랑의 음악회”와 “무료 합동 결혼식”을 열며,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소외된 특정 사회 계층을 위한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음영위원회의 사역은 기독교 문화 예술을 통해 교회의 예배를 돕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며 사역이지만 교회 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교자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사역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을 담당하며 교회 예배를 돕는 부서인 음영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3-1] 음영위원회의 주요 활동

주요 활동	내용
찬양 선정 및 연주	매 예배를 위해 적절한 찬양을 선정하고, 악기 연주자와 찬양대 및 중창단 등과 협력하여 찬양을 연주함.
예배 인도	주일 예배 및 특별 행사 예배에서 리더의 역할을 함. 목사님과 충분한 협의 후 찬양 시간의 순서와 진행 방식을 결정하면서, 성도들에게 경건한 예배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함
악기연주 및 지도	팀원들에게 악기 연주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연주자들은 더욱더 전문적이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예배를 도울 수 있음.
본부와의 협력	매 예배마다 찬양 연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와 협력, 특별찬양순서 진행 시 각 교구의 성도들과 의논하여 찬양에 따른 연주를 도와줌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	선교와 공연을 위한 미래형 공연장인 《월드 글로리아 센터》를 오픈, 음악인과 무용인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유치시키며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참여를 유도함.
사회적 가치 실현	‘사랑의 음악회’ 와 ‘무료 합동 결혼식’을 열며, 지역 안에 소외된 특정 사회 집단을 위한 사랑과 관심을 나눔.

제 2 절 팀의 구성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을 주도하고 있는 팀들은 첫째, 찬양과 관련된 모든 팀, 둘째는 관현악 악기 연주를 통한 예배 연주팀, 셋째는 여러 다양한 악기를 이용하여 선교에 힘쓰는 악기선교팀, 넷째는 무용을 담당하는 예배무용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찬양과 관련된 팀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찬양대 및 중창단이 있다. 명성교회는 주일 예배를 오전에는 총 5부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찬양예배로 드린다. 이때 각 예배마다 지정된 찬양대가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다. 1부 예배의 찬양대는 『은혜 풍성한 찬양대』, 2부는 『감사 넘치는 찬양대』, 3부는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 4부는 『성령 충만한 찬양대』, 5부는 『선교 봉사 힘쓰는 찬양대』의 헌신으로 예배를 찬양으로 돕고 있다. 절기 예배나 교회의 창립기념행사 등 특별 행사 예배 시에는 앞의 5개의 찬양대가 한 몸을 이룬 『연합찬양대』인 대규모 형태의 찬양 사역을 진행하기도 한다.⁶⁴⁾ 이는 명성교회가 갖추고 있는 4000 여명의 대규모 성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다른 교회와는 차별화된 모습의 사역 형태이다.

중창단은 크게 여성팀, 남성팀으로 구분되어 있고 대학부 및 청년부를 대표하는 중창단도 있다. 여성 중창단⁶⁵⁾은 『값진 진주 중창단』, 『주의 옷자락 중창단』, 『향유옥합 중창단』, 『샤론의 꽃 중창단』, 『세상의 빛 중창단』, 『혈문의 이슬 중창단』이란 이름으로 총 6개의 팀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으며, 매 예배시간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통해 예배를 돕고 있다. 남성 중창단⁶⁶⁾은 『닛시 남성 중창단』이란 이름으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 『호산나 중창단』⁶⁷⁾은 1987년 대학부에서 만든 중창단으로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다.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은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도 지원 가능하며 찬양에 열정이 있는 대학부원을 추구한다.

64) 찬양. <<https://naver.me/xqo0CvWd>>.

65) 중창단. <<https://naver.me/5Vlzba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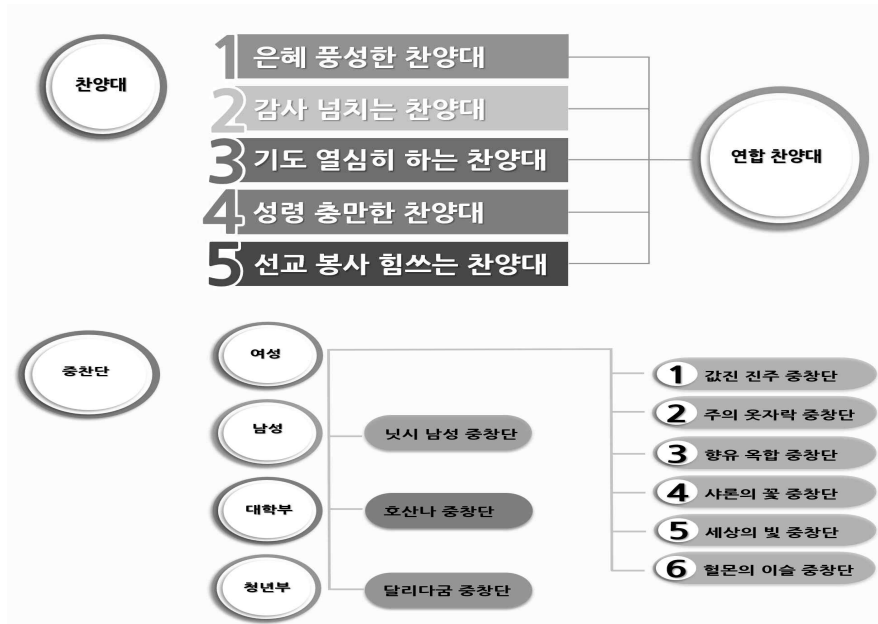
66) 닛시남성중창단. <<https://naver.me/xb7DYkzH>>.

67) 호산나중창단. <<https://naver.me/FNGPZEA>>.

매년 3월 공식 오디션을 통해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주로 CCM 장르를 찬양하고 있지만 그 외 클래식 및 성가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있다. 매주 일정한 시간 대학부 리더훈련 부서인 ‘꿈장마루’에서 예배 전 준비 찬양을 인도하고 있으며,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에 찬양으로 섬기는 편이다. 또한 대학부 예배 및 수련회에서 특별순서를 통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타 행사에도 리더의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대학부 소속이다 보니 주로 대학부 예배에서 헌신하고 있다. 이 부서는 해마다 당회 안수집사가 단장으로 섬겨주고 있다. 『달리다굼 중창단』⁶⁸⁾은 청년부 소속 찬양부서로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그로 인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청년부 예배를 비롯하여 여러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정기모임을 통한 교제와 연습이 있고 대상은 성악 전공자 및 비전공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에 열정이 있는 청년부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중창단의 역할 및 기능은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예배 음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주일 예배와 절기 예배 그리고 기타 교회 행사에 참여하여 찬양으로 아름다움과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찬양대 및 중창단의 멤버들은 전문적인 음악적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는 음악대학이나 음악 학원에서 전문교육을 받거나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며, 일부는 아마추어 실력자로서 열정과 애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으며 성도들에게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나눠주고 있다. 이 팀들의 체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각 팀에 부여된 단장 제도로, 이들은 안수집사 이상의 직분자이며 사역팀들에 대한 기도 후원과 각 팀을 위한 물질적, 재정적 후원자로 교회에서 연초에 세워준 임원 체계이다. 이처럼 명성교회는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에 대하여 교회가 함께 지원 및 후원 체계를 잡아주며 그들의 활동이 수월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다음의 그림은 찬양대 및 중창단의 구성 현황이다.

68) 달리다굼중창단. <<https://naver.me/GhNCprws>>.



[그림 3-1] 찬양대 및 중창단의 구성

둘째, 예배의 모든 연주를 담당하는 부서로 관현악단이 있다. 관현악단은 성인부와 청소년부로 구분되며 각 예배에서 정기적인 연주 활동을 통하여 예배를 돕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연과 협연을 진행하기도 하며, 단원들은 전문적인 음악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케스트라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찬송가나 CCM등을 연주하고 있지만 클래식 연주 및 다양한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관현악단의 연주는 예배를 더욱 경건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감과 위로를 전해준다.

또한 명성교회 관현악단은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음악적인 기초를 가르치고 그들의 음악적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부 관현악단⁶⁹⁾은 악기에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악기에 관심이 있는 청

69) 청소년부 관현악단. <http://www.msch.or.kr/xe/?mid=organ02_03>.

소년들이 모여 각자의 악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서이며, 일 년에 두 번의 특별순서 연주와 한 번의 가을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주 1회 정기적인 연습이 있고, 오디션은 토요일 연습 시간에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다.



[그림 3-2] 관현악단 구성

셋째, 다양한 악기를 이용하여 사역하는 악기선교팀이 있다. 이는 『핸드벨 선교단』⁷⁰⁾, 『사물놀이 선교단』⁷¹⁾, 『국악선교단』⁷²⁾이다.

『핸드벨 선교단』은 1995년 창단되었으며 단장과 지휘자 그 외 6명의 임원들과 연주팀으로 청장년 13명, 초등부 1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 후 2008년부터는 교회학교, 사랑부, 영어예배 등 교회 내의 여러 예배뿐 아니라 개척교회 선교, 병원 선교,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핸드벨 활동 등 선교 영역을 외부로 넓혀 핸드벨로 찬양을 드리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종소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이다. 이 선교단은 주로 성탄절 예배에서 연주를 통해 여러 팀들과 함께 종소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무대 연출을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핸드벨 연주로 예배를 돕고 있다.

『사물놀이 선교단』은 2010년 추수감사절 행사 이후 결성된 부서로, 우리의 것과 우리의 가락, 전통악기를 통하여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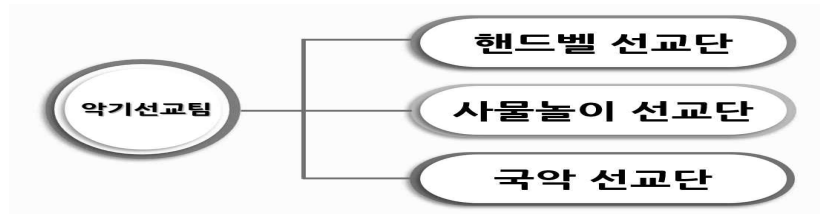
70) 핸드벨 선교단. <<https://naver.me/GhNCprws>>.

71) 사물놀이 선교단. <http://www.msch.or.kr/xe/?mid=organ02_2011&cat=03>.

72) 국악선교단. <http://www.msch.or.kr/xe/?mid=organ02_2011&cat=03>.

서로 쓰임 받고 있으며 주 1회 정기모임을 통한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음악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애쓰며 초보반도 운영하고 있다.

『국악선교단』은 전통 우리 가락과 음악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단이다. 주일 저녁 찬양예배에 국악기와 전통 노래로 특별순서에 정기적인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다.



[그림 3-3] 악기선교팀 구성

넷째, 무용예술 공연 및 무용을 통해 예배 및 선교사역을 담당하는 예배무용팀이 있다. 예배무용팀은 『현대무용 선교단』⁷³⁾, 『아름다운 무용선교단』⁷⁴⁾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무용 선교단』은 2001년 현대무용전공자들의 모임에 육완순 교수를 청빙하고 고문 역할을 부탁하면서 『명성무용단』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10년 『현대무용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예배무용 사역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현대무용 선교단』은 해마다 절기 예배 및 기타 행사예배에 핵심적으로 예배무용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 온몸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며 경배하고 있는 팀이다.

『아름다운 무용선교단』은 1997년에 『고전무용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한국무용 작품으로 무용 선교에 앞장서게 되었고, 꾸준히 절기 예배 등 특별행사에 무용으로 예배를 돕고 있으며 담임 목회자의 외부 선

73) 현대무용 선교단. <<https://youtube.com/watch?v=JHSXEaZ7PEI&feature=share7>>.

74) 아름다운 무용선교단. <<https://youtube.com/watch?v=UtCcgtLdbxU&feature=share7>>.

교사역을 돕고 있는 팀이다. 2010년 『아름다운 선교 무용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도 예배 시 특별순서에 무용으로 정기적인 공연을 올려드리고 있으며 공연의 스타일은 한국 전통춤 공연과 찬양에 맞춘 워십댄스가 주를 이룬다.



[그림 3-4] 예배무용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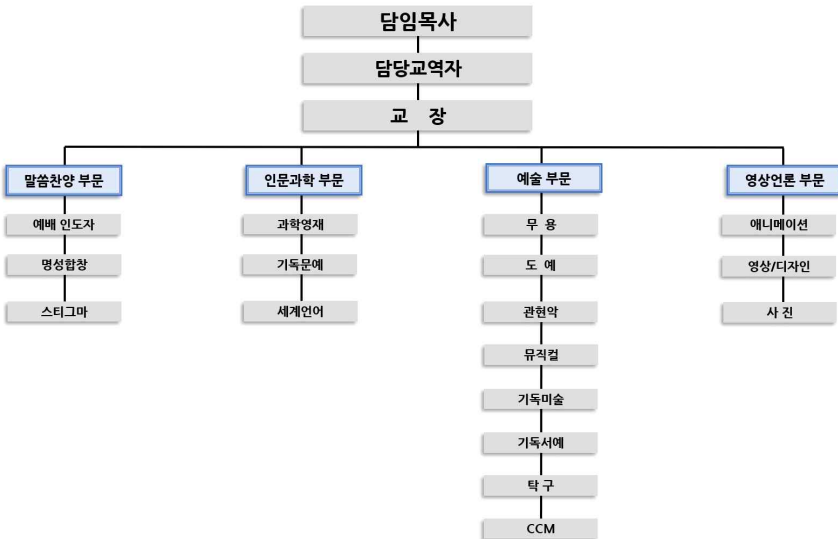
총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진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팀들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기본적으로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팀의 조직체계는 단장 제도라는 것을 확보, 지원받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 및 체계를 확보해 줌으로써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본부에서 정해 준 1년간의 사역 스케줄을 따른다. 예배 시간마다 특별순서에 다양한 재능으로 예배를 돕고 있으며 각각의 기능 및 특성에 맞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제 3 절 사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명성교회는 ‘문화선교학교’⁷⁵⁾라는 기독교 문화예술을 통한 사역자 양성 교육기관이 있다. 이는 2001년 시작된 교육기관으로 말씀찬양 부문, 인문과학 부문, 예술 부문, 영상언론 부문인 네 가지 영역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앞서 말한 네 개의 부문에서 분류된 12개의 교

75) 문화선교학교. <<https://naver.me/5RtBw5Hm>>.

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오다 현재는 과학영재, 관현악, 기독교미술, 기독교서예, 다니엘 글쓰기, 도예학교, 명성합창, 무용, 뮤지컬, 사진학교, 세계언어, 스티그마, 영상디자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탁구학교, CCM학교로 총 16개의 학교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문화선교학교 조직도 및 프로그램 구성 현황⁷⁶⁾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5] 문화선교학교 조직도 및 프로그램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16개 문화선교학교의 교육과정 및 목적을 아래의 표로 요약하였다.

[표3-2] 문화선교학교의 교육과정 및 목적⁷⁷⁾

NO	구분	교육과정 및 목적
1	과학영재	관찰, 실험, 탐구 활동 교육을 통해 창의로운 사고력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기르며 내재 된 과학적 재능을 발견하고 심화시킴

76) 문화선교학교 조직도, <http://www.mscho.or.kr/xe/?mid=school08_02>.

77) 과학영재학교 외 15학교, <<https://naver.me/xkIRYMuV>>.

2	관현악	관현악 전공 교사들과의 1:1 교육 통하여 음악적 소양을 발견하여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성장시킴. (음대 준비 전공반도 있음)
3	기독교미술	미술교육을 통해 작품활동을 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미술적 감각을 익히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육함
4	기독교서예	서예를 통해 정서적으로 마음을 안정, 집중력을 향상시켜 창의력 높은 인재로 성장하도록 함
5	다니엘 글쓰기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다양한 영상을 감상한 후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말하기로써 표현하며, 창의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동시, 편지, 성경 말씀 쓰기 등 글쓰기 교육에 집중
6	도예학교	도자기를 빚고 굽는 활동을 통해 도기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주님의 손길을 통해 빚어진 질그릇이 곧,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교육함
7	명성합창	합창, 중창, 개인별 레슨 등 다양한 교육 방법과 체계적인 성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음악적 소양은 물론 공동체를 배워나가며 실력 있는 음악인으로 양성
8	무용	아름다운 신체의 움직임, 즉 무용을 배우면서 예술적인 소양을 기르고 무용을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역자로 양성
9	뮤지컬	노래, 춤, 연기 수업을 통해 멋진 뮤지컬 공연을 만들어 가며 미래의 공연 예술 문화 사역자를 양성
10	사진학교	카메라 기초이론, 촬영 실습, 사진 예술의 기초, 전시 감상 등을 통한 교육과정으로 카메라와 사진에 대해 전문 교사진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사진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11	세계언어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체계적으로 배워 선교사 양성에 힘씀
12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뜻으로 뜨거운 찬양집회를 통해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 부흥을 주도하는 믿음의 일꾼 양성에 힘씀
13	영상 디자인	미디어 시대,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와 아름다운 디자인 수업 등으로 미디어 선교를 감당하는 인재 양성에 힘씀

14	청소년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합주를 통해 음악적 소양을 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연주와 공연을 만드는 공동체로 양성
15	탁구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으며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운동인 탁구를 통해 건전한 취미생활을 유지, 심신의 건강을 위한 공동체 모임 유지
16	CCM학교	어쿠스틱 기타, 일렉 기타, 건반, 보컬, 드럼 등의 실용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 양성

문화선교학교는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기독교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회 성도 및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종의 지역 내 문화센터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

수업은 1년에 2학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문화선교학교는 “해와 같이 별과 같이”라는 주제로 2천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발표 및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행사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 문화를 통한 선교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것으로 행사에는 영아부, 유아부 아동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준비한 기량과 솜씨를 발휘하면서 다양한 부서별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였는데 당시 김삼환 목사는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문화가 세상의 사탄문화로부터 위협당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제시하고 기독교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선교학교를 열었다”⁷⁸⁾고 하였다.

또한 문화선교 학교의 교사진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교인 중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교적 사명감과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마음으로 교사로 섬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악기 관련 교육 파트에서는 교사와의 1:1 지도하에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시에 대비할 수 있는 심화 교육과정도

78) 한국기독교공보 기사글. <<http://pckworld.com/article.php?aid=2358855748>>.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화선교학교’가 다양한 기독교 문화예술향을 통해 교회 내 아이들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정립된 기독교 문화예술향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문화를 통한 선교사의 사명을 갖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해마다 기독교 문화예술향 교육 프로그램을 변화, 발전시키고 있다.

문화선교학교의 예술 부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부문은 ‘무용학교’, ‘도예학교’, ‘관현악학교’, ‘뮤지컬학교’, ‘기독교미술학교’, ‘기독교서예학교’, ‘탁구학교’, ‘CCM학교’로 총 8개의 학교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무용학교’의 교육과정만 언급하자면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테크닉 등을 조화롭게 배우고 익힘으로써 공연 활동 및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통하여 기량을 펼치고, 예배자로서의 경건함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대상은 유치부 어린이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하며, 취학 전 아동 및 초등저학년은 발레 교육 수업이 주를 이루며, 초등부에서부터 성인부까지는 난타 수업, 초등부에는 워십댄스 수업 등 각 대상에 따라 교육과정을 달리하고 있다. 유치부 어린이들의 발레 수업에서는 발레 교습 외 줄넘기를 활용한 생활체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교육내용은 발레의 경우 스트레칭, 발레 용어 및 테크닉 익히기, 발레 작품 배우기로 진행되고 초등부의 워십댄스 수업에서는 찬양에 맞춰 소고 및 부채들을 이용한 무용 동작 수업 및 현대무용 동작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있다. 성인부는 난타 교육과정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나 어린이 난타팀과 연합으로 예배 안에서 작품발표회를 여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교육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총 2회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평균 2시간이다. 무용학교의 교육과정과 활동에 대해서는 예배 안에서 발표회처럼 공연되는데 주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또는 성탄절 예배에 특별순서로 그간 배웠던 것들을 발표하며 예배를 돕고 있다. 다음은 무용학교의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표 3-3] 무용학교 운영

구 분		운 영
교 육 운 영		상반기/ 하반기로 1년 2회로 나뉘어 운영
교 육 시 간		평균 수업 시간은 1회에 2시간
교 육 과 정		어린이(유치부, 유년부)는 발레, 난타, 학교 체육 활동 (공놀이, 줄넘기, 장애물넘기 등) 과정
		초등부는 워십댄스
		성인부는 난타 교육
반 편 성		주중반/ 토요일반/ 주일반으로 운영

문화선교학교의 활동과 교육 현황에 대하여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안에서 영상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특별순서로 무용학교 어린이부서의 작품발표회가 종종 있다. 이것은 1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워왔던 것들을 작품으로 완성하여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은 발레 공연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초등부 친구들은 발레나 워십댄스 공연을 올리고 있다. 그 외 성인 난타부는 어린이부와 함께 연합으로 난타를 활용한 찬양발표회를 올리기도 하였다.



[사진 3-1] 무용학교 ‘발레 공연’



[사진 3-2] 무용학교 ‘워십댄스 공연’

무용학교의 이러한 무용작품 발표회는 시기상 연말에 올리는 편이다. 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무용학교 아이들의 율동을 성탄 발표회의 개념으로 연극 또는 뮤지컬의 형식으로 공연을 한 적도 있다. 공연은 각 부서의 발표로 진행되기도 하나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초등부서까지 대규모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사진3-3] 무용학교 '난타 연합공연'



[사진3-4] 무용학교 '성탄 발표회'

제 4 장 명성교회 예배무용 사역

명성교회에서 예배무용 사역을 하고 있는 팀은 장년부에 『현대무용 선교단』, 『아름다운 무용선교단』, 청년대학부에 『댄스선교부』⁷⁹⁾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아동부 예배 중 찬양으로 특화된 예배인 앤프랜즈 예배⁸⁰⁾가 있다. 참고로 앤프랜즈는 예배무용팀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린이 신앙교육을 주로 찬양으로 하고 있으며, 부서 내 어린이 찬양 울동팀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어 예배무용 사역으로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제 1 절 『현대무용 선교단』

본 무용단은 명성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육완순 교수의 기독교 예술무용 작품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공연을 관람하면서 강한 감동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결성된 무용단이다. 담임목회자는 육완순 교수에게 본 교회에서 예배무용을 올려달라 하였고, 그 당시 올려드렸던 예배무용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다.

2001년 당시 교회 내 현대무용 전공자들의 모임은 있었으나 대표자가 없었기에 그 팀의 대표로서 육완순 교수를 청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현대무용전공자들의 모임이 『명성무용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이 시작되었고, 당시 육완순 교수는 고문 역할을 담당했다.

2010년 『현대무용 선교단』으로 재창단되면서 지도교수에 육완순, 무용단의 행정, 기획, 의상 제작 등의 업무를 돕는 임원진 그리고 단원인 무용수들로 구성되어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균적으로 무용수들은 매년 15명의 재적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육완순 교수가 지도교수로 역임하였고, 2022년부터 이정현이 지도교수로 무용단을 지휘하고 있다.

79) 댄스선교부. <<https://youtube.com/watch?v=o26UM52M6Ms&feature=share7>>.

80) 앤프랜즈. <<https://naver.me/FVb9NuPj>>.

무용수는 현재 남자 무용수 2명을 포함하여 17명이며, 정단원 무용수는 12명, 나머지 5명은 준단원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 무용단의 예배무용 사역은 주로 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돕는 사역의 형태로 절기 예배 및 특별행사 예배뿐만 아니라 오전 예배나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예배 등 모든 예배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예배하기도 하지만, 담임 목회자의 목회를 춤이라는 예술을 통하여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⁸¹⁾고 하였다. 예배 안에서 다양한 안무기법과 연출 등으로 뛰어난 무용 예술 형태의 공연을 통해 예배를 도우며 전문 무용사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본 연구가 명성교회의 『현대무용 선교단』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에 다음 장에서 본 무용단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사진들은 명성교회 『현대무용 선교단』이 보유하고 있는 레파토리 작품이며, 작품을 표현함에 있어 나타나는 특성을 기록하였다.



[사진 4-1] 『현대무용 선교단』의 작품 “You were there ”

“You were there ”이라는 작품은 2023년 4월9일 부활절 예배 시 올려졌던 작품으로 “주님은 거기에 계셨군요”라는 신앙고백이 담겨있는 예배무용이다. 이는 가면극 사용 및 극적인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안무한 작품이다. 집중도를

81) 이정현, 2022년 11월 28일, 인터뷰.

위해 다양한 표현을 연출하였고, 장마다 뚜렷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진 4-2] 『현대무용 선교단』의 작품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본 무용단에서 주기적으로 올리는 예배무용 작품으로 작품마다 레파토리가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올려진 작품마다 동선과 대형, 그리고 무용수의 규모를 다르게 하는 시도를 통해 변화를 주고 있다. 현대무용의 기본 테크닉을 적절히 사용하여, 몸의 움직임을 통해 주기도문의 내용이 한눈에 나타나도록 표현하였다.



[사진 4-3] ‘『현대무용 선교단』의 작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무용은 개척 초기에 가졌던 담임 목회자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작품이며, 이 작품도 주기적으로 올려지고 있다.



[사진 4-4] 『현대무용 선교단』의 작품 “오래전”

“오래전”이라는 작품은 2018년 12월 23일 성탄절 절기 행사에 올린 예배무용으로 그림자극을 활용하여 작품을 독창성 있게 표현하였다.

제 2 절 『아름다운 무용선교단』

1997년에 『고전무용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팀을 이루어 무용단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2010년에 『아름다운 무용선교단』이라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한국무용을 통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름다운 무용선교단』은 한국무용 전공자 선생님이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무용을 취미 삼아 가르쳐준 것을 시작으로 결성이 되었다. 그 모임에서 그동안 연습했던 무용 작품을 비정기적으로 절기 예배 행사 때, 무대에 올려 선보이곤 하였는데, 그것을 의미 있게 본 담임 목사가 정식으로 무용단을 결성하라 하였고, 그 당시 지어준 이름이 『고전무용단』이었다.

구성원은 대표리더(지휘자), 무용단을 돕는 임원인 단장 1명, 부단장 2명

그리고 14명의 무용수가 있다. 1997년 결성 초기에는 대표리더(지휘자)와 무용수들의 헌신으로만 무용단의 사역을 이뤄갔다. 그러다가 교회에서는 본 무용단을 돕는 임원을 지원하여 무용단의 운영을 돕게 하였다. 예배무용 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약 5년 후에는 부단장 2명을 추가로 지원해 주었으며, 단장과 부단장으로 불리는 이들의 역할은 무용단을 위한 중보 기도자 그리고 물질적 지원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안무 및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리더(지휘자), 무용단의 전반적인 행정 및 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단장, 단장을 도와 무용단의 부수적인 일들을 함께 돕는 두 명의 부단장으로, 이들은 각자의 직책에 따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즉 무용단의 업무 분담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 명확한 구조로 볼 수 있다.

『아름다운 무용선교단』은 주로 주일 저녁 찬양예배와 절기 예배 및 특별행사 예배에 무용을 통해 헌신하고 있으며, 담임 목회자의 양로원 방문 및 교도소 방문 등 국내 외부 선교사역에 동행하여 한국적인 무용 작품을 통해 문화선교 및 전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해외 선교사역에도 동행한 적이 있다.

무용단의 연습 일정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시간에 정기적 모임이 있으며, 최근에는 직장인 신입 무용수들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 시간까지 총 3번의 모임 및 연습 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무용수들의 무용 전공 유무를 살펴보자면 대표리더(지휘자)와 6명의 무용수는 무용전공자다. 그중 대표리더(지휘자)를 포함하여 한국무용 전공자가 5명, 발레전공자가 1명, 현대무용 전공자 1명이다. 그 외 8명의 무용수는 비전공자로, 본 무용단은 전공자 45%, 비전공자 55%로 비전공자의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다. 무용수들의 평균 연령은 45세이며 전원 여자 무용수로 이루어져 있다.

단원 모집은 1년에 1회로 대 예배 때 무용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광고영상을 통해 무용단에 대하여 홍보하며 단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나, 문의가 들어오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상담한다. 단원을 영입할 때 기준점이 있다면 전공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나 비전공자는 50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강도 높은 한국무용 테크닉 훈련 시에 나이가 많은

무용수들이 체력의 한계와 테크닉 표현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했기에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된 규칙이다.

대표작으로는 “사명”, “사모곡”, “주께서 왕이시라” 등이 있으며 예배에 정기적으로 올려지고 있다. 올려진 예배무용 작품은 화관무, 부채춤, 장구춤, 북춤, 삼고무 춤 등 전통 한국무를 활용한 작품들이 많이 있으며, 한국무용을 접목한 몸 찬양이 주를 이룬다. 의상 또한 한국적인 전통의상을 추구하며, 화려한 색상의 의상을 주로 입는 편이다.

본 무용단이 명성교회 내 타 무용단과 다른점은 무용수들의 의상은 자비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1997년 결성초기에 모든 단원들의 공통된 마음으로 “어떠한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부터 순종하는 마음이다.”⁸²⁾라고 하면서 현재도 그 부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며 순종한다고 하였다. 아래의 사진은 본 무용단의 대표작인 “사명”, “주께서 왕이시라”의 장면이다.



[사진 4-5] 『아름다운 무용선교단』의 작품 “사명”



[사진 4-6] 『아름다운 무용선교단』의 작품 “주께서 왕이시라”

82) 김선우. 2022년 11월 30일, 인터뷰.

제 3 절 『댄스선교부』

『댄스선교부』는 청년대학부 소속의 무용단으로 1990년 초반에 결성되었다. 찬양팀과 무용팀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뉘진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배에서 위십댄스를 통한 춤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팀이다. 결성된 시기가 1990년대 초반으로 두 장년부 소속 무용단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유한 무용단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청년대학부 내에서 활발한 예배무용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본 교회 대학부 소속 청년이라면 누구나 『댄스선교부』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단원 모집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모임 또한 주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유, 훈련하고 있다.

주로 공연하는 장르는 위십댄스와 CCD로 확인되나 무용의 장르를 한 가지로 제한하지 않는다. 주요 활동은 청년부 단기 선교 및 기타 행사 등에 참여하여 무용으로 섬기고 있으며, 청년대학부 예배에서 찬양 인도팀과 협력하여 춤과 노래로 예배 인도를 주관하고 있다. 대학부 예배는 토요일 오후이므로 주로 토요일 대학부 예배 내에서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특별순서로 공연하기도 하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다.

『댄스선교부』는 특별행사 예배 시에 본 교회의 『현대무용단』이나 『아름다운 무용선교단』과 협업하여 무용공연을 종종 한다. 타 무용단과의 콜라보 무대를 연출할 때, 본 무용단이 가진 장점과 개성을 살려 무용 움직임을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는 편이다. 이들은 젊은 세대로써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에, 무대마다 새롭고 독창적인 무용 움직임을 전달하고 있다. 때로는 퍼포먼스적인 공연으로 무대에 올리거나 뮤지컬을 활용한 뮤지컬 형식의 예배무용 작품을 올리기도 하였다.

다음의 [사진 4-7]은 매주 토요일 청년대학부 내 예배에서 무용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며, [사진 4-8]은 2016년 1월 31일 공연한 『현대무용 선교단』과의 콜라보 무대인 “진노의 날(베르디)”과 2017년 10월 29일에 올린 “Hollyn-alone, 시편1편” 예배무용으로 『아름다운 무용선교단』과 콜라보 무대를 연출한 장면이다.



[사진 4-7] 청년대학부 예배 중 『댄스선교부』의 활동 모습



[사진 4-8] 타 무용단과의 협업 무대

제 4 절 앤프렌즈 예배

앤프렌즈(NFRIENDS) 예배는 2008년부터 시행하였으며, 교육부서 내 새로운 사역연구소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명성교회에서 찬양으로 특화된 어린이 예배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 예배는 하나님과 어린이들의 소중한 만남을 강조한다. ‘앤프렌즈 예배’는 어린이들의 생각과 언어를 반영한 문화 속에서 어린이들이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린이들의 언어와 문화에 집중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앤프렌즈 예배’는 교회학교 유소년 어린이들(초1~초6학년)이 찬양 율동을 담당하고 있는 예배로 이 어린이들은 책임감을 갖고 예배에 임하며, 다양한

팀으로 구성되어 예배 전 찬양 울동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어린이들은 주중에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고, 담당 교사와 함께 울동에 대한 안무를 연구하고 구상하고 있다. 초기에는 3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엔프랜즈 찬양예배’가 시범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예배의 긍정적인 활성화로 인해 이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현재 명성교회의 ‘엔프랜즈 예배’는 교회학교 유소년 어린이들의 찬양 울동으로 특화된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엔프랜즈’ 찬양디렉터에서 제작한 찬양 울동 곡의 특성은 어린이 예배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가사와 메시지에 깊은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은 말씀을 쉽게 접하고, 몸의 움직임을 통하여 말씀을 외울 수 있게 하며,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엔프랜즈’의 주된 사역은 ‘찬양, 울동, 말씀’ 관련 영상 콘텐츠 개발이며 다양한 그림 이미지 자료, 찬양 MR, 악보 자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본 교회의 어린이 예배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보급, 제공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린이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은 꾸준한 영상 콘텐츠 개발로, 어린이 예배가 이러한 영상예배를 통해 변함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주변의 어려운 여러 교회학교에 무료로 영상을 제공하여 돕기도 하였다.

엔프랜즈 예배 안에는 찬양, 울동을 통한 많은 활동이 있으며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게임, 성경 드라마 상영, 챗트를 통한 말씀 암송 등 어린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예배의 시작에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어린이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찬양으로 특화된 어린이 예배 ‘엔프랜즈 찬양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표 4-1] 엔프랜즈 찬양예배 순서⁸³⁾

83) 엔프랜즈 예배 순서 <<https://naver.me/FVb9NuPj>>.

구분	NO	구성요소	내용	소요시간
예배 전 활동	1	카운트다운	예배시작을 알리며 카운트다운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시간이다.	30초
	2	게임	재미있는 게임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닫혀 있는 마음을 연다.	5분
	3	찬양&울동1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찬양과 울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된다.	8분
		찬양&울동2		
애프랜즈 예배	4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께서 예배에 우리 친구들을 참 예배자로 부르시고 초청하신다.	30초
	5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친구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다.	30초
	6	기도	부장 집사님이 예배와 영적 결단을 위한 기도를 한다.	1분
	7	성경말씀 암송	오늘의 본문 말씀을 즐겁게 암송한다.	5분
	8	찬양대	어린이들로 구성된 찬양대와 함께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린다.	3분
	9	드라마	말씀과 연관된 드라마 상영을 통해 설교의 주제제기와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10분
	10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방법으로 전하며 친구들 삶에 도전과 변화에 영향을 준다.	15분

	11	결단 찬송	하나님을 향한 결단 찬양을 하며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케 한다.	3분
	12	헌금	찬양과 함께 담임교사가 돌아가며 친구들을 안아 주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물질을 봉헌한다.	1분
	13	헌금기도	설교자가 헌금과 친구들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한다.	1분
	14	주기도문 (축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한다.	30초
	15	광고	교회 소식과 부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다.	3분
	16	새친구 환영	오늘 나온 새 친구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다.	3분
예배 후 활동	17	분반공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다. 설교 말씀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삶을 나누고, 총회에서 나온 교재로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	20분

이처럼 앤프랜즈 예배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찬양, 말씀, 드라마, 암송 챗트 등을 활용하며 어린이 예배를 활성화하고 있다. 예배 중 찬양대 어린이들의 찬양 율동을 올려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어린이들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좋은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앤프랜즈 내 ‘프로듀스N’이라는 프로젝트 활동이 있는데, 이 사역은 교사와 아이들이 각각의 팀을 이루어 자체적으로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이다. 이 사역은 어린이를 위한 찬양을 작사 작곡하며 안무하고 영상을 찍

어 최종적으로 뮤직비디오 영상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의 창의성 계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사진들은 뮤직비디오 영상이 최종 본선에 오른 어린이 사역 팀으로, 이들은 2022년 12월 4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에 특별순서로 자신들이 안무한 찬양 율동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사진 4-9] 앤프랜즈 ‘프로듀스N’ 뮤직비디오 창작 1



[사진 4-10] 앤프랜즈 ‘프로듀스N’ 뮤직비디오 창작 2

제 5 장 『현대무용 선교단』의 예배무용 사역

제 1 절 『현대무용 선교단』의 사역

1) 『현대무용 선교단』의 구성 및 운영

2001년 교회 내 현대무용 전공자들의 모임이 『명성 무용단』이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어 활동해 오다가, 2010년 『현대무용 선교단』이라는 명칭으로 재창단 되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육완순 교수가 안무 및 지도자의 역할로 역임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그와 함께 오랜 시간 무용단에서 활동하였던 이정현이 지도교수로 역임 중이다.

육완순(1933~2021)은 한국의 1세대 현대무용가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무용과와 동 대학원 현대무용 전공을 졸업한 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현대무용 사사 후 귀국하여 미국의 현대무용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했다는 점에 무용계에서 주목을 받았다.⁸⁴⁾

1980년에는 한국 현대무용협회를 창립하여 오늘날의 국제현대무용제(MODAFE, Modern Dance Festival)로 성장하는 결실을 이루기도 하였고, 1985년에는 사단법인 “한국현대무용진흥회”를 창립하여 이사장직을 역임하면서 본 진흥회를 문화체육부 등록단체로 발족시켜 현대무용 안무 활동을 비롯한 현대무용의 국제교류 및 우수 안무가의 해외 진출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창작무용계를 발전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끊임없는 창작 및 안무 활동을 통해 190여 편이 넘는 작품을 공연하였으며 “논개”, “부활”,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초혼”, “황무지”, “단군기원”, “독백”, “살풀이”, “전설”, “한 두레”, “실크로드” 등은 뛰어난 예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그 중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는 세계 최초 현대무용으로 안무 된 작품으로 1973년 초연 이래 85만명이 넘는 관객

84) 육완순. <<https://naver.me/Fz9r8qy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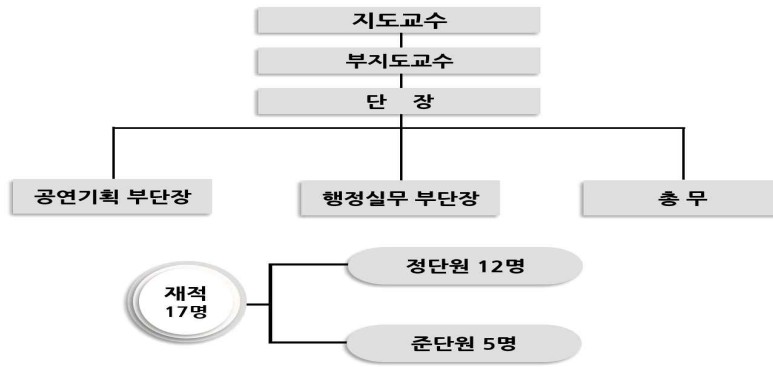
층을 확보하고 있는 작품으로 우리나라 무용 사상 49년이라는 최장기 공연기록을 세우고 있는 작품이다.⁸⁵⁾

본 무용단은 명성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육완순 교수를 본 교회의 현대무용 전공자들의 모임에 대표리더 및 고문 역할을 제안한 청빙으로 시작된 무용단이다. 2010년 초기 사역 시에는 지도교수에 육완순, 무용단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단장 및 총무로 두 명의 임원단과 함께 무용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도왔으나 무용단의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면서 단장 1명과 부단장 3명으로 총 4명의 임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안무와 총지도를 담당하는 지도교수, 무용단의 총괄 행정을 관리하는 단장, 지도교수와 함께 무용공연의 전반적인 기획과 관련된 활동에 기여하는 기획부단장, 그 외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부단장과 무용수들의 필요와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정서적 지지 및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총무로 체계를 잡아 무용단을 이끌어가고 있다. 특별한 변화 없이 지도교수, 단장, 기획부단장, 행정실무 부단장, 총무로 구성되어 2017년까지 활동을 이어오다가, 2018년에 부지도교수라는 직책이 추가되었다. 부지도교수의 역할은 지도교수를 대신하여 무용단원을 지도하는 것이며 안무 구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도교수와 부지도교수, 4명의 임원 그리고 17명의 무용수를 포함하여 현재 총 23명이 『현대무용 선교단』을 이루고 있다. 무용수는 남자무용수 2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이며, 정단원 12명과 준단원 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현대무용 선교단』의 조직도 및 구성과 각 직책의 역할을 요약 정리하였다.

85) 육완순 자화상. <<https://naver.me/5xnALz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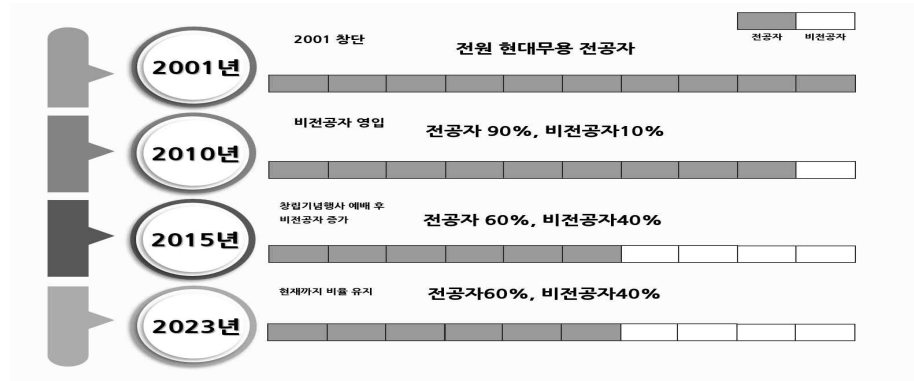


[그림 5-1] 『현대무용 선교단』의 조직도 및 구성

[표 5-1] 직책 및 역할

직 책	역 할
지 도 교 수	안무와 총 지도를 담당
부 지도 교 수	지도교수를 도우며 무용단원 지도
단 장	무용단의 총괄 행정을 관리
기 획 부 단 장	지도교수와 함께 무용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활동에 기여
부 단 장	행정적인 실무담당
총 무	무용수들의 정서적 지지 및 관리

2001년 전원 현대무용전공자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나 2010년부터 비전공자들에게도 무용단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당시 전공자가 90%이고 비전공자가 10%였으며 비전공자의 지원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2015년 교회창립기념 행사 예배를 기점으로 무용수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로 비전공자들의 지원이 증가하게 되어 현재까지 전공자는 60%, 비전공자는 40%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공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림 5-2]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율 변화

운영방침 및 지원 체계는 운영방침으로 공식 오디션, 신체 훈련과정, 영성 훈련과정을 알아보았고, 지원 체계는 시설 및 장비와 관련된 지원, 인적 지원, 재정적 지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무용단의 공식 오디션 절차는 없으나 상시 모집을 통해 단원을 영입하고 있다. 무용 전공 유무와 상관 없이 문의를 받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무용전공자들이 지원하는 편이다. 단원을 영입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1년 이상 교회에 다니고 있어야 하며 등록된 교인이어야 한다. 이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충실하며, 본 무용단의 목적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무용전공자는 선발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이는 전공자들은 무용 기술과 이론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선교단 활동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다. 셋째, 무용공연 등의 경험 유무를 확인한다. 이는 무용을 통해 타인에게 예술적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넷째, 면담을 통해 성품과 예배 마인드를 조심스레 확인한다. 이는 선교단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추었는지 살펴보고, 예배무용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무용 선교단』은 앞서 말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들 중에서 단원 영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단원들은 기독교 무용

수로서 자격이 되는 무용수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사유 또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무용단을 탈퇴하는 경우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8~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가 대부분이다. 충분한 경력과 무용 경험을 가진 무용수들을 영입하면서, 더불어 신앙이나 성품 면에서도 본 무용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무용수로, 장기적으로 오래 활동할 수 있는 무용수들을 선호하고 있다.

무용단의 훈련과정은 신체 훈련과 영성 훈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기적인 훈련 모임으로는 매주 1회 화요일 오후 7~9시, 2시간의 훈련 시간을 갖고 있다. 이 훈련의 과정은 예배무용 공연이 없을 시에도 지속되며, 모임 시간장님의 기도를 시작으로 선교단에 관한 공지 사항 등 광고를 듣고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모임이 진행된다. 이후 3~40분 동안 부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스트레칭을 통한 워밍업 시간을 갖고 있다. 이후 현대무용 테크닉을 연습시키고 있다. 이는 수준 높은 동작의 연출을 위해 일상적으로 테크닉을 연습하는, 공연 준비를 위한 과정이다. 예배무용 공연 일정이 잡히면 스트레칭 후 작품의 안무 연습으로 바로 진행한다.

훈련 시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비전공자들의 수준을 전공자들의 수준으로 올려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비전공자와 전공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들의 실력차가 너무 나지 않도록 안무를 구상하며 연습시키는 편인데, 연습 시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도록 교육 시키고, 비전공자들도 모든 동작에 어려움 없이 충분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안무 연습을 시킨다. 작품의 완벽성을 위해 무용 동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영성 훈련의 과정은 월 2회 『현대무용 선교단』을 맡은 음영위원회 담당 목사님이 방문하여 기도회를 열고 있다. 예배무용 공연이 잡히면 주로 기도회를 통하여 영성 훈련을 한다.

무용단에 관한 지원 체계로는 시설 및 장비와 관련된 지원, 인적 지원, 재정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대무용 선교단』의 전용 연습실 제공을 시설적 차원의 지원으로 볼 수 있고, 장비적 차원에서는 고급 품질의 음향시스템, 교회 내 조명 및 무대 장치 등이 있다.

인적 지원으로는 교회에서 체계를 잡아 준 임원제도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무용단을 위한 기도 후원자의 역할과 무용단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물질적, 재정적 후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들은 무용단의 예배무용 작품과 관련된 소품 제작 및 필요한 의상을 직접 만들어주는 등 작품의 기획과 관련된 여러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협력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으로는 교회의 예산안에서 예배무용 사역에 대한 정기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무용수들의 의상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지도교수는 교회로부터 지도비를 받으며 사역하고 있다.

2) 『현대무용 선교단』의 창작 작업

무용단의 창작 작업으로는 안무, 음악, 의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안무에 있어서 무엇을 통하여 영감을 받는지 그리고 평상시 안무 구상을 위해 하는 작업들은 무엇인지, 안무 구상 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독교 무용 안무가로서 기본적으로 안무는 대부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받고 있다. 말씀 연구와 기도는 작품 준비과정에 언제나 우선적인 사항이라고 하였다. 또한 안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현대무용의 특성상 감정과 정신을 표현함에 있어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매끄러운 동작을 추구할 수 있기에 움직임을 만들 때, 말씀이 작품 안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연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⁸⁶⁾고 하였다.

또한 안무 구상 시 무용수들의 표현력에 따라 안무 구상을 달리하기도 하는데 안무가 너무 어렵지 않게 혹은 너무 단조롭지 않게 구상하여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실력의 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중간 점을 찾아가며 안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배무용 공연 시에 합을 잘 이루며 아름다운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한다. 일반적으로 찬양 예배 시 무용 공연 요청이 오게 되면 우선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미리 확인하여 가능하면 말씀의 내용과 걸맞게 지도교수가 작품의 음악을 선곡하고, 말씀과 찬양

86) 이정현 . 2022년 11월 28일, 인터뷰.

가사를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구상을 시작한다. 안무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도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나 부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안무 구상을 하기도 한다.

절기 예배 또는 교회 창립기념일 등 특별행사 예배 시의 무용공연 시에는 일반적인 예배에서의 안무 창작 과정과는 다르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 팀의 총 연출자가 절기 예배 공연의 주제를 정하고, 무용단에게 소주제와 테마를 전달함과 동시에 공연 주제에 맞는 음악 또는 오케스트라 연주 등을 미리 선정하여 준다. 이때는 무용단만이 아니라 다른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팀들의 음악 및 찬양까지도 선곡하여 준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총 연출자의 기획 의도에 맞는 음악선정이 있는 편이다. 그러면 주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총 연출자와 협의하여 작품의 의도를 확인한 후, 전달받은 음악에 맞추어 무용 동작을 연구한다. 그 후에는 작품을 위해 충분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안무를 구상하고 주제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돋보일 수 있도록 안무의 틀을 잡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도 높고 더욱 의미 있는 결과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절기 예배와 특별행사 예배 시 작품 준비과정은 여러 사역팀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연습해야 하는 시간과 과정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총 연출자는 보통 한 달 전에 주제를 각 팀에게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안무가의 안무 창작 작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경우와 그 차이점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5-3] 일반 예배와 절기 및 행사예배 시 안무 창작 과정의 차이점

두 번째로 음악과 관련된 창작 과정으로 지도교수는 음악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음향을 선정하여 무대에 올린다. 음악을 선정하는 기준은 작품의 내용과 주제에 따라 그 작품의 분위기, 감정, 줄거리 전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음악을 선정하는데 지도교수는 평상시 소리와 음악 기법이 독특한 연주곡 등을 수시로 듣고 저장해 놓는 습관이 있다. 어떠한 장면의 연출에서는 이러한 소리, 이러한 음악표현을 사용해야 할지 평상시 음악을 많이 듣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또한 복음성가로 음악을 결정할 때에는 예배 안에 선포되는 말씀과 비슷한 가사의 곡으로 선정하여 안무한다. 무용 동작과 음악의 가사 전달을 통해 말씀이 더 깊게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연구한다.

음악 선택에 있어서는 작품의 특성상 전달력 있는 표현을 위해 여러 음악을 선택 및 편집하여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 표현하기도 하며, 편곡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찬양곡, 복음성가의 음악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예술적 가치와 창의적 표현을 위해 클래식 음악 및 다양한 음악가들의 연주곡 등을 활용하며, 교회 관현악단의 라이브 연주에 맞춰 주제를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움직임에서는 음악 없이 동작만을 연출하기도 한다.

안무 구상과 비슷하게 절기 예배 및 기타 행사예배 시의 음악선정은 총 연출자가 의도한 주제에 따라 방향성을 맞추어야 하기에 지정해 주는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다. 따라서 무용공연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작품의 내용, 분위기와 감정, 줄거리 전개, 리듬과 템포 등 테크닉적인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선정하고 지도교수나 절기 예배 담당 총 연출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의상과 관련된 사항은, 지도교수가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테마 안에 의상을 선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선교단의 체계적인 운영체제로 의상을 담당하는 임원이 있어, 최종적으로 의상을 선별하고 제작해 주고 있다. 때로는 단원들과 안무에 맞는 세세한 스타일을 함께 논의하여 의상을 준비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예배무용을 올릴 때 의상은 주로 흰

색 현대무용복이나 드레스를 입고 무용에 임한다. 의상의 색상은 주로 흰색으로 입지만, 작품의 주제 및 분위기에 따라 머리 장식과 드레스의 허리끈에 다른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하는 등 작품의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한다. 이러한 의상은 대부분 교회에서 의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의상실이 있으며, 절기 예배에는 음악을 선정해 주기 때문에 총 연출자의 작품 기획 안에서 의상의 테마가 정해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절기 시 교회력에 맞는 색상을 고려하는 편이며, 최종적으로 무용단에서 의상의 형태 및 색상들을 선정하여 공연에 맞게 준비한다.

제 2 절 『현대무용 선교단』의 예배무용 사례

1) 예배무용 사역

[표5-2] 『현대무용 선교단』의 예배무용 사역⁸⁷⁾

년 도	일 자	작 품 명	협 업 팀	예 배 시 간
2011	7월 6일	주의 옷자락 환상곡		창립31주년 (수요저녁)
2012	2월 26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일저녁
	3월 25일	겸손의 왕		주일5부
	4월 1일	호산나	여성중창단 교역자 연합	주일1부
	4월 1일	호산나	여성중창단 교역자 연합	주일2부
	4월 1일	호산나	여성중창단 교역자 연합	주일3부
	4월 1일	호산나	여성중창단 교역자 연합	주일4부
	7월 8일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창립32주년 (주일저녁)
	7월 15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일저녁
	10월 28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일3부

87) 예배무용 사역 <<https://naver.me/FWmZ57YM>>.

2013	3월 6일	주기도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수요저녁
	7월 7일	부흥		창립33주년 (주일저녁)
	7월 7일	주의 옷자락 환상곡	연합찬양대	창립33주년 (주일저녁)
2014	8월 24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일저녁
	9월 28일	실로암	국악퓨전연주팀	일천번째 달성감사 (주일저녁)
	12월 25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절 (주일3부)
2015	5월 16일	Everything	청년대학부와 연합	샤인 지저스 전도축제 행사에배
	12월 25일	캐롤 메들리	힐몬의 이슬 중창단 청년대학부 찬양팀	성탄절 (주일3부)
	12월 27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기도문		주일저녁
2016	1월 31일	진노의 날(베르디)	청년대학부와 연합	주일저녁
	11월20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청년대학부와 연합	주일저녁
2017	9월 24일	주기도문		(주일저녁)
	12월 24일	Lux(빛)		성탄절 (주일저녁)
2018	9월 2일	팔복		주일저녁
	10월 28일	바닷길	CCM단원	주일저녁
	12월 23일	오래전	청년대학부와 연합	성탄절 (주일저녁)

2019	10월 27일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추수감사절 (주일저녁)
2021	4월 4일	부활의 아침	혼성중창단	부활절 (주일3부)
	12월 19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한밤중에	청소년합창단 솔리스트 핸드벨 선교단	성탄절 (주일저녁)
2022	4월 17일	예수 나를 위하여	피아노 5중주	부활절 (주일저녁)
	4월 17일	천사의 합창	솔리스트 8중주	부활절 (주일저녁)
	10월 30일	태초의 움직임 그리고 감사	오세은(오르간)	추수감사절 (주일저녁)
2023	4월 9일	You were there (주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부활절 (주일저녁)

2010년 재창단 이후 매우 활발히 예배무용 사역이 진행되었다. 최근의 예배무용 사역은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주로 이뤄지고 있는 편인데, 2012년도에는 특별히 낮 예배 시간에도 예배무용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당시의 예배무용은 “호산나”이며, 이 작품을 매 예배 시간에 올려드렸고, 교역자들과 여성중창단이 함께 부르는 찬양을 배경으로 무용공연을 하였다.

『현대무용 선교단』은 절기 및 특별행사 예배뿐만 아니라 일반 예배 시간에도 예배무용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낮 예배 시간보다는 저녁 예배에서의 사역의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 절기 예배 중 『현대무용 선교단』의 사역은 부활절과 성탄절 예배 시에 좀 더 비중이 높은 사역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모든 절기 즉,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서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다.

무용공연 시 협업은 청년대학부의 『댄스선교부』와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

며, 무용 움직임 또한 적극적이며 다채롭다. 음악 사용에 있어서는 복음성가, CCM뿐만 아니라 다양한 곡을 라이브 음악으로 연주하여 무용을 시도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종종 선보이기도 하였다.

작품 중 “주기도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옷자락 환상곡”은 주기적으로 예배에 올린 작품이었으며, 해마다 안무 구성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무용은 개척 목회자인 ‘김삼환 목사의 신앙 고백’을 담은 내용으로 『현대무용 선교단』이 교회와 함께 자체적으로 만든 명성교회의 차별화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2) 예배무용 사례

이 장에서는 2022년 10월 30일 추수감사절 예배에 올려진 예배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당시 예배무용 사역은 『현대무용 선교단』, 『아름다운 무용선교단』, 『댄스선교부』의 다양한 사역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중에서 교회로부터 직접 음악선정과 함께 작품의 주제를 제시해 준 『현대무용 선교단』의 예배무용 “태초의 움직임 그리고 감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추수감사절 찬양예배는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팀(음영위원회)의 협동 사역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빛으로 이어가는 감사’였다. 소주제는 ‘소리’, ‘성장’, ‘열매’, ‘무르익음’, ‘찬양’, ‘감사’였으며,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총 9팀의 공연이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는 공연 예술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총 9개 사역팀의 순서를 [표 5-3]에 정리하였다.

[표 5-3] 추수감사절 찬양예배 순서⁸⁸⁾

번호	소주제	테마 및 작품명	참여팀 및 협력팀	지휘자 또는 반주자	곡명(음악)
1	소리	태초의 하나님 그리고 빛	금관오케스트라단	유병엽	팡파르 (fanfare for the common Man)
2	생명	태초의 움직임 그리고 감사	현대무용 선교단, 오르가니스트	조상욱 (오세은)	바하의 Toccata & Fugue(D단조 BWV 565) (오르간 솔로)
3	성장	영광과 감사	영솔리스트 합창단, 오케스트라단	배성희 (오윤선)	Gloria (감사해)
4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아름다운 무용선교단, 국악 연주팀	성수연	감사하세
5	열매	확신의 감사	청년대학부 CCM 팀, 댄스선교부	조윤희	Higher (그 누가 뭐래도)
6	무르익음	무르익음의 감사	플룻2인, 오르간	오현숙 (오세은)	사계 가을 3악장
7	찬양	범사에 감사	80인의 합창단, 타악기	이형민 (임성은)	그래도 감사
8	감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	영솔리스트 단원 및 연합찬양대	배성희 (반주자)	주제곡(편곡)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 되어
9	감사	영과 진리로 주께 감사	오케스트라단	조상욱	Te Deum

88) 이정현 제공, 2023년 8월 7일.

명성교회의 절기 예배는 문화예배와 비슷한 맥락으로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 팀들의 작품공연이 하나의 주제를 이루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목사님의 말씀 시간이 기존 예배와 달리 비교적 간략하게 진행되었다.

선포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로 우리가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권면하였다. 당시 목사님의 말씀은 모든 공연이 끝난 후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예배가 마무리되었다.

절기 예배의 주제는 본부 측에서 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준비위원(담당 교역자, 준비 위원장, 상임부장)을 세운 후 모든 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이때 찬양 예배의 컨셉을 정하고 총 연출을 하도록 전문사역자를 세우는데, 음악 및 무용 등 예술과 관련된 전문가 중 한 사람을 총 연출자로 세우며, 절기 찬양 예배의 모든 연출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체계를 갖춘 후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팀의 리더들은 총 연출자와 함께 회의를 통해 각 팀이 추구해야 할 사역의 테마를 회의한다. 이때는 총 연출자가 각 순서마다 나타내고자 하는 작품표현의 의도가 있기에 정해주는 음악에 무용 움직임을 표현한다거나, 정해진 찬양을 불러야 한다. 때로는 주제를 전달하면 팀에서 자체적으로 음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정해진 테마와 총 연출자의 기획 안에서 음악 선곡 및 찬양 선곡이 이루어진다.

2022년 10월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의 총 연출은 오케스트라단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 정주영, 조연출은 조남원, 조명담당은 원주현, 음향은 김동준, 추수감사절 무대 장치는 본부 무대 장식팀이 진행하였다.

『현대무용 선교단』의 예배무용 작품 “태초의 움직임 그리고 감사”는 안무에 이정현, 의상은 민원화가 담당하였다. 본 예배무용은 바하의 “토카타 앤 푸가 D단조 (BWV565)”에 맞춰 연출하였고, 공연 당일 오르가니스트 오세은의 연주와 함께 공연되었다. “토카타 앤 푸가 D단조 (BWV565)”는 실제 악

9분 정도의 길이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예배무용을 위해 5분 51초로 재구성하였다. 처음 0초부터 2분 55초는 ‘토카타 기법’의 연주로 이루어졌으며 2분 25초에서 마지막 5분 51초까지는 ‘푸가 기법’의 연주로 이루어졌다.

이 곡은 총 연출을 맡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정주영에 의해 선곡되었고, 선곡된 곡의 음색 및 표현 등을 참고하여, 창세기 1장의 주요 내용인 하나님의 창조과정과 그 만들어진 존재들 사이에 있는 신비함과 역동성을 그로데스크한 현대무용 동작으로 안무하였다.

의상에 있어 나타나는 특징은 창세기 1장의 처음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기 위해 스커트 색은 갈색, 아이보리색, 어두운 밤색 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흙의 느낌, 짐승 또는 생물체들의 실제 색과 비슷한 느낌을 나타냈다. 2인무로 출현하는 아담과 하와의 의상은 스커트 옷감과 같은 색의 베스트를 제작하여 약간의 차별화를 주었다.

가) 작품의 의도 및 내용

“태초의 움직임 그리고 감사”라는 예배무용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안무이다. ‘생명 있음’의 모습을 신비롭고 역동적이며 그로테스크한 현대무용 동작으로 작품화 한 것으로 무용수들의 동작을 통해 표현된 태초의 움직임은 ‘생명’, ‘호흡’, ‘움직임’, ‘조화’, ‘질서’, ‘감사’의 몸짓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대무용 선교단』의 순서는 오프닝 무대를 마친 후 바로 진행되었으며 본 예배무용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작품의 의도는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였다. 다시 말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우리가 지금 살아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내는 이 모든 움직임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자는 의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절기로 시작하여 절기로 마칠 만큼 절기를 가장 잘 지키는 백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이 지키는 대표적인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인데, 이들은 이 3대 절기 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지켜왔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며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먼저 정하고 그 절기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게 하심”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⁸⁹⁾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절기를 지켜온 것과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상기시킬 수 있었던 예배무용이었다.

‘태초의 움직임 그리고 감사’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품의 총 소요 시간은 5분 51초이다. 1장은 0분 00초 ~3분 03초, 2장은 3분 04초~4분 51초, 3장은 4분 52초 ~5분 51초 구성되었고 출연한 무용수는 총 10명이다.

1장은 창세기 1:1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으며 흑암, 빛, 수면 위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과 생물체의 태동과 호흡을 표현하였다.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의 이 부분에서는 처음 세상의 어지러움, 혼돈 등을 표현하였고, 땅에 심겨진 생물체의 움직임과 호흡을 형상화하고 있다.

2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 안에 땅은 그 종류대로 생물을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였다. 또한 모든 것을 만든 후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등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담과 하와, 즉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상징하도록 하였고, 사람과 각종 짐승 등 창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평화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3장은 모든 살아 숨 쉬는 것이 이 땅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며 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의 동작들로 마무리를 지었다.

『현대무용 선교단』의 예배무용 작품의 의도는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89) 박은규.(1990). 『예배의 재발견』. 대한기독교 출판사, pp. 191-194.

였으며, 오직 말씀 안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중점을 두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은 그 근원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작품이다. 추수 감사절의 의미는 단지 일 년간 땀 흘리며 농사짓고 거두어들인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총 3장의 내용과 시간, 출연 무용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5-4] “태초의 움직임 그리고 감사”의 내용⁹⁰⁾

장 구분	내용	시간	무용수
1장	흑암, 빛, 수면 위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과 생물체의 태동 과 호흡을 표현	3'03"	8명
2장	전반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과 짐승의 움직임을 형상화 후반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1'47"	전반부-8명 후반부-2명
3장	만물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는 감사의 몸짓	1'39"	10명

다음은 일반 예배와는 다르게 절기 및 행사예배에서 『현대무용 선교단』의 예배무용이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절기 예배 시에는 나타내고자 하는 절기의 주제가 있으므로,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팀

90) 이정현 제공, 2023년 8월 7일.

들과의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작품의 창작 작업 과정을 거친다.



[그림5-4] 예배무용 진행 과정

“태초의 움직임 그리고 감사”는 총 9팀의 순서 중 오프닝 무대 다음으로 올린 순서였으며, ‘빛으로 이어가는 감사’라는 주제 안에서 무용 움직임을 통하여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즉,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동시에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본 작품의 의도였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전적인 감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무용이었다. 따라서 안무가는 창세기 1장의 말씀 구절을 주제 말씀으로 정하여 한 동작 한 동작을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안무하였다. 작품은 총 3장으로 이뤄졌으며 작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나) 작품의 구성

[표5-5] 제 1 장 구성

시간	이미지	주제 말씀	장면 사진
3'03"	생물체의 태동과 호흡 연출 ->혼돈과 질서의 공존	창1:1 태초에 하나 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라	
		창1:2 땅이 혼돈하 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은 수면 위 에 운행하시 니라	
		창1:6 하나님이 이 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 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 고	

[표5-6] 제 2 장 구성

시간	이미지	주제말씀	사진
1'47"	전반부) 각종 생물과 짐승들의 움직임 ->역동성, 생명	창1:20 하나님이 이르시 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 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창1:24 하나님이 이르시 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 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후반부) 하나님이 보시 기에 좋았더라 ->기쁨, 평화	창1:26 하나님이 이르시 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대로 우리가 사람 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 시고	
		창1:27 하나님이 자기 형 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와 여자를 창조하 시고	

[표5-7] 제 3 장 구성

시간	이미지	주제말씀	사진
1'39"	만물이 하나 됨 - > 조 화 와 감사의 몸짓	창1:28 하나님이 그 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 님이 그들에 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 성하여 땅에 충 만 하 라, 땅을 정복하 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 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 는 모든 생 물을 다스리 라 하시니라	

2022년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를 통해 본 『현대무용 선교단』의 예배무용 사역은 교회에서 정한 주제를 인지하고, 총연출자의 기획 의도에 맞게 예배무용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상하며, 안무는 창세기 1장 말씀을 모티브로 하여 구상하였다. 그 후 단원들의 연습 일정을 가졌고 마지막 이틀 전에는 리허설 및 조명 리허설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무대에 작품을 올렸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회 내 예배무용 사역을 위한 사례 연구로 명성교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그중 『현대무용 선교단』의 예배무용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명성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문화예술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초기부터 다양한 문화예술의 도입과 장려로 인해 현재 교회 예배에서는 말씀과 함께 특별순서로 찬양, 기악, 무용 등의 공연이 매 예배마다 이뤄지고 있다. 성가대 또한 4000명 이상의 대규모로 이뤄진 특징적인 교회이며, 예배무용 사역이 교회의 다양한 후원과 지원 체계를 통해 장려되고 있다.

명성교회에는 『현대무용 선교단』, 『아름다운 무용선교단』, 『댄스선교부』, 앤프렌즈 예배 안의 어린이 찬양 올동팀 등 다양한 예배무용팀이 있는데, 그 중 『현대무용 선교단』은 육완순 교수가 이끌었던 무용단으로 예술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왔으며, 2021년 육 교수의 타계 후에도 이정현에 의해 예배무용 사역을 활발히 담당하고 있는 무용단이다. 명성교회 예배무용은 대부분 절기 중심의 예배무용 사역을 진행하는 일반 교회들과 달리, 절기 외에도 교회의 다양한 행사, 주일 오전 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등 모든 예배에서 예배무용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명성교회의 예배무용 사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명성교회 예배무용 사역의 운영은 체계적으로 조직화 된 구조를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단장과 부단장으로 구성된 제도 안에서, 이들은 무용단을 위해 물질 및 재정적 후원 외에도 기도로 예배무용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단장은 행정적인 일들을 총괄관리, 기획부단장은 지도교수를 도와 공연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돕고 그 외 부단장과 총무는 의상과 소품 등을 제작해 주며 무용수들의 정서적 지지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명성교회의 특별한 시스템으로 무용단의 운영을 팀 사역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교회 구성원

들이 함께 협력하고 조화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교회와 팀이 연합하여 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명성교회의 예배무용 사역은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으로 무용단의 전용 연습실 외에도 음악 시스템을 다양하게 지원받고 있으며, 교회 내 조명사용, 무대 장치 등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예배무용 사역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명성교회 예배무용 사역은 교회 내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팀들과 전문성 및 예술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대학부 소속 『댄스선교부』와도 협업을 하며,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교회 내 오케스트라와의 협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예배무용 창작 시스템의 기반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넷째, 명성교회 『현대무용 선교단』의 경우 예배무용 사역을 위해서 무용수들의 신체 훈련과 영성 훈련의 조화로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체 훈련에 있어 작품 레파토리 연습과 함께 현대무용 테크닉을 통한 실기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영성 훈련으로는 음영위원회 담당 목사의 주관 아래 월 2회의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무용수들의 신체 훈련과 더불어 영성 훈련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용단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도비, 의상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성교회의 예배무용 사역을 살펴본 결과, 예배무용이 체계적인 운영과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은 절기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특별 행사에서 예배무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며, 교회의 오케스트라 및 다른 예배무용팀과 적절한 협업을 통해

사역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명성교회는 예배무용 사역의 완성도와 전문성 및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과 후원을 하면서, 예배를 위한 무용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연구는 대형교회 중 예배무용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명성교회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 밖에도 중소형 교회 안에서 예배무용 사역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다 깊이 있는 예배무용 사역에 관한 후속 연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연구는 예배무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예배무용이 진정한 예배를 위한, 가치 있는 또 하나의 예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곽지혜. (2021). 『연극치료 모델을 활용한 스킷 드라마 효과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남수. (1996). 교회오케스트라 운영. 『복음과 실천』, 19(1):70-74.
- 김남희. (2017). 『교회무용 팀 사역을 위한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김사랑. (2016).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한국음악학학회』, 24(1):60.
- 김선우. 2022년 11월 30일, 인터뷰.
- 김승국. (1994). 『한국수화연구』. 오성 출판사.
- 김신자. (2020). 『뮤지컬의 기독교 문화사역 활용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김영미. (2019). 『한국 교회 예배무용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김영식. (1994). 『한구석 밝히기』. 서울: 도서출판 뿌리.
- 김은정. (2005). 『기독교 관점에서의 무용치료의 전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주한. (2009). 『성가대의 효과적인 기초훈련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 김현정. (2020). 기독교 무용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현황 연구. 『기독교무용 연구』, 3:15-17.
- 문성모. (1997). 『민족 음악과 예배』. 서울: 한들 출판사.
- 박금자. (1988). 『무용론』. 서울: 도서 출판 금광.
- 박미정. (2006). 『신학생들의 기독교 무용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_____. (2020). 『한국교회 예배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박순자. (2008). 『21세기의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 서울: 금광 미디어.
- 박양식. (2002). 『성경에서 찾은 문화선교 전략』.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_____. (2004). 『문화를 알면 사역이 보인다』. 서울: 기독교 연합신문사.
- 박연훈. (2002). 『몸찬양 비디오 통신대학』. 프레이즈.
- 박은규. (1990). 『예배의 재발견』. 대한기독교 출판사.
- 박인용. (2015). 『기독교 스토리텔링을 소재로 한 국내 창작 뮤지컬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박현주. (2004). 『한국 기독교무용의 전망』.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박혜성. (2013). 창작 뮤지컬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고찰. 『한국예술연구』, 제7호: 171.
- 손수경. (2008). 『기독교 방송매체를 통한 기독교무용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송종건. (1998). 『무용학 원론』. 서울: 도서 출판 금광.
- 신수연. (2009). 『기독교무용의 교회 내 활용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 대학원.
- 안신희. (2021). 절기무용 수업 강의노트.
- 앤드루 램. (2008). 『150년 뮤지컬의 역사』. (정영목, 역). 서울: 풀빛.
- 이국병. (2015). 『한국교회 찬송가의 역사에 관한 고찰』.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 전문대학원.
- 이복수. (2012). 기독교 선교 영역으로서의 문화 사역. 『복음과 선교』, 17: 170.
- 이신영. (2001). 『한국 선교 무용의 실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 완. (2018). 『절기 예배무용 창작을 위한 접근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이은주. (2017). 『구술채록문 분석을 통한 초기 한국현대무용사 연구: 미국현

- 대무용 도입기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정인. (2010). 『기독교 무용의 인식 변화 분석』.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정현. 2022년 11월 28일, 인터뷰.
- 이주연. (2004). 『성서를 통한 예배무용의 적용 방안』.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지영. (2019).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문화예술의 방향과 전략』.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 이진희. (2016).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실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경희. (2008). 『기독교무용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 개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임혜영. (2006). 『기독교무용 작품 「70년, 희년의 춤」을 통한 대중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현식. (2000). 『스킷 드라마』. 예영 커뮤니케이션.
- 최경희·박영애 (2016). 기독교 무용 지도자 양성의 현황 및 개선 방향. 『한국무용예술학회』, 61(4) : 75.
- 최수진. (2016). 『현대 교회 내 기독교 무용의 인식 분석에 의한 개선 방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신정. (2006). 『하나님을 향해 춤을』. 서울: 요나단 출판사.
- 최지연. (2012). 『기독교무용의 가치 인식 변화에 따른 공연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대학원.
- 한재선. (2008).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 무용의 유형과 현황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홍성준. (2009). 『기업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교회 문화사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 인터넷 웹사이트

개혁주의. <<https://naver.me/5CpdmR2y>>.

과학영재학교 외15학교. <<https://naver.me/xkIRYMuV>>.

국악선교단. <http://www.msch.or.kr/xe/?mid=organ02_2011&cat=03>.

그날. <[https://www.yonsei.or.kr/mc/page/subp.html?cd=YNOTI&mo=_view
&seq=55866](https://www.yonsei.or.kr/mc/page/subp.html?cd=YNOTI&mo=_view&seq=55866)>.

닛시남성중창단. <<https://naver.me/xb7DYkzH>>.

달리다굼중창단. <<https://naver.me/GhNCprws>>.

댄스선교부. <<https://youtube.com/watch?v=o26UM52M6Ms&feature=share7>>.

명성교회. <<http://www.msch.or.kr/>>.

명성교회음영위원회. <<https://naver.me/GhNCprws>>.

문화선교학교. <<https://naver.me/5RtBw5Hm>>.

문화선교학교조직도. <http://www.msch.or.kr/xe/?mid=school08_02>.

뮤지컬 그날. <blog.naver.com/yonsei_y001/10014144120>.

뮤지컬의 정의. <<http://www.korean.go.kr/>>.

사물놀이선교단. <http://www.msch.or.kr/xe/?mid=organ02_2011&cat=03>.

서울기독대학교. <<https://naver.me/x6A82fUU>>.

아름다운무용선교단. <<https://youtube.com/watch?v=UtCcgTLdbxU&feature=share7>>.

애프랜즈 예배 순서 <<https://naver.me/FVb9NuPj>>.

애프랜즈. <<https://naver.me/FVb9NuPj>>.

연세중앙교회. <<https://naver.me/x9QHKG8o>>.

예배무용 사역. <<https://naver.me/FWmZ57YM>>.

월드글로리아센터. <<https://m.segye.com/view/20071003001491>>.

육완순 자화상. <<https://naver.me/5xnALz5B>>.

육완순. <<https://naver.me/Fz9r8qyd>>.

중창단. <<https://naver.me/5VlzbaEY>>.

찬양. <<https://naver.me/xqo0CvWd>>.

청소년부관현악단. <http://www.msch.or.kr/xe/?mid=organ02_03>.

하정완 목사의 스킷드라마 대본집.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179452>>.

한국기독교공보기사글. <<http://pckworld.com/article.php?aid=2358855748>>.

한국성가대의역사. <<https://naver.me/FjjDeJVx>>.

핸드벨선교단. <<https://naver.me/GhNCprws>>.

현대무용선교단. <<https://youtube.com/watch?v=JHSXEaZ7PEI&feature=share7>>.

호산나중창단. <<https://naver.me/FNGPZEAy>>.

ABSTRACT

A Case Study for Worship Dance Ministry within the Church

-Focused mainly with Myeong-Seong Church
『Contemporary Dance Mission Team』 -

Lee, Ju-Hee

Major in Christian D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Currently, most churches acknowledge dance as an element of worship, actively incorporating and encouraging its use to enhance and revitalize worship services. However, at this juncture, it seems crucial to examine cases related to worship dance ministry, exploring the role and functions of worship dance within the church. Investigating how these ministries are structured and supported becomes important.

This study is a case study focusing on worship dance ministry within the church,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Contemporary Dance Mission Team』 at Myeong-Seong Church. Since its early stages,

Myeong-Seong Church,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enior pastor with an open heart for cultural arts, has actively introduced and encouraged various forms of cultural arts. As a result, the church's worship services now include special segments featuring praise, instrumental performances, dance, and more, alongside the sermon in every worship session. Furthermore, as a distinctive church with a large-scale choir comprising over 4,000 members, worship dance ministry is actively encouraged through diverse sponsorship and support systems. The characteristics of Myeong-Seong Church's worship dance ministry were investigated through interviews and references to the church's website. Summarizing the findings based on the case of worship dance ministry at Myeong-Seong Church,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can be highlighted.

First, the operation of Myeong-Seong Church's worship dance ministry is systematically organized. Within a structured framework consisting of a director and assistant director, they actively support the ministry through material and financial sponsorship, as well as prayer.

Secondly, the worship dance ministry at Myeong-Seong Church receives diverse support, including dedicated rehearsal spaces for the dance team, as well as support for music systems. The church has also established equipment such as lighting and stage devices.

Thirdly, the worship dance ministry at Myeong-Seong Church maintains a collaborative system with other Christian cultural arts ministries within the church, leveraging professionalism and artistic expertise. Collaboration with the 『Dance Mission Team』 under the Youth Ministry, and active cooperation with the church orchestra in musical aspects, is evident.

Fourthly, in the case of Myeong-Seong Church's 『Contemporary Dance Mission Team』, there is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physical

and spiritual training for dancers involved in worship dance ministry.

Lastly, the church secures a budget for the operation of the dance team,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leadership fees, costumes, and other necessities.

In conclusion, Myeong-Seong Church's worship dance ministry operates systematically and is well-organized. The church makes diverse efforts to elevate the completeness, professionalism, and artistic aspects of worship dance ministry through various forms of support and sponsorship. It is clear that the church is committed to faithfully fulfilling the role of dance in worship by making multifaceted efforts.

【Key Words】 Worship dance, Worship Dance Ministry, Christian Cultural Arts, Myeong-Seong Church, Contemporary Dance Mission Team